

# 제3차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에 관한

##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결과 요약

붙임1. 질문지





# CONTENTS

##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	1
II. 주요 조사 항목 .....	2
III. 표본의 특성 .....	3
IV. 가중값 배율 .....	5

##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	9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여부 .....	9
2. 투표 참여 현황 .....	9
3. 투표 후보자/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10
4. 지지 후보 결정 정보 .....	10
5. 선거 공명도 평가 .....	11
6. 선거 문제점 및 경험한 불법 선거운동 .....	11
7. 투표 효능감 .....	12
8. 사전투표제 인식 .....	12
9. 선거제도 변경 인지도 .....	13
10. 기타 선거제도 인식 .....	13
11.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	14
12.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평가 .....	16



# CONTENTS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	17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행태 .....	17
2. 투표 하지 않은 이유 .....	18
3. 투표 참여일 및 사전투표 현황 .....	19
4. 지지 후보 결정 시점 및 고려사항 .....	20
5. 선거 관련 정보 획득 .....	21
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성 평가 .....	22
7. 선거 공명성 평가 이유 .....	23
8.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	24
9. 불법 선거운동 경험 및 대응 .....	25
10. 투표 효능감 .....	27
11. 사전투표제 관련 인식 .....	28
1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인식 .....	29
13. 선거제도 변경 인지도 .....	30
14. 기타 선거제도 인식 .....	31
15.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 .....	33
16.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38

## 붙임1. 질문지



## PART 1

### 조사 개요





# 제 1 장 | 조사 개요

## I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규모** ▶ 총 1,5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TAPI(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조사 기간** ▶ 2020년 4월 16일(목) ~ 5월 6일(수) (총 21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II 주요 조사 항목

### 지지후보 및 지지정당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여부
- ▶ 투표 미참여 이유
- ▶ 투표 참여일
- ▶ 사전투표 이유
- ▶ 사전투표제 없을 시, 투표 가능 여부

###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지지 후보 결정 시기
- ▶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 비례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정당,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 정당, 후보자 선택 정보 충분 여부
- ▶ 선관위 선거정보 도움 여부

###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언론보도 공정성 평가
- ▶ 선거과정 공명성 평가 및 이유
- ▶ 이번 선거의 문제점
- ▶ 불법선거운동 경험 여부 및 대응 방법
- ▶ 공명선거를 위한 필요 사항



### 선거제도

- ▶ 선거연령 하향 인지도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의석 배분 방식 인지도
- ▶ 사전투표제 인지도
- ▶ 사전투표제 도움 정도
- ▶ 현행 사전투표제의 문제점 및 개선점
-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인지도
- ▶ 투표시간 보장 여부
- ▶ 투표시간 미보장 고용주 신고 여부 및 미신고 이유
- ▶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인지도
-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 및 과태료 부과 제도 인지도
- ▶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효용성
- ▶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 선관위 활동 평가

- ▶ 선관위 홍보활동 접촉 여부 및 도움 정도
- ▶ 선관위 홍보활동 전반적 효과
- ▶ 선거캠페인 슬로건 접촉 여부 및 호감도
- ▶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접촉 여부 및 호감도
- ▶ 선관위 역할 및 활동 평가
- ▶ 선관위 역점 과제



### Ⅲ 표본의 특성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1,500	100.0
성별	남자	744	49.6
	여자	756	50.4
연령별	18~29세	272	18.1
	30대	238	15.9
	40대	285	19.0
	50대	295	19.7
	60대	218	14.5
	70세 이상	192	12.8
권역별	서울	290	19.3
	인천/경기	464	30.9
	대전/세종/충청	158	10.5
	광주/전라	148	9.9
	대구/경북	147	9.8
	부산/울산/경남	229	15.3
	강원/제주	64	4.3
직업별	화이트칼라	383	25.5
	블루칼라	338	22.6
	자영업	272	18.1
	가정주부	274	18.3
	학생	93	6.2
	농임어업	31	2.1
	무직/기타/무응답	110	7.3
학력별	중졸 이하	223	14.8
	고졸	587	39.1
	대재 이상	686	45.7
	모름/무응답	5	0.3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4	14.3
	201-500만원 이하	948	63.2
	501만원 이상	298	19.9
	모름/무응답	40	2.7

## IV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목표할당[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562	100.0	1,500	100.0	1.04
성별	남자	773	49.5	744	49.6	1.04
	여자	789	50.5	756	50.4	1.05
연령별	18~29세	285	18.2	272	18.1	1.05
	30대	246	15.7	238	15.9	1.04
	40대	293	18.8	285	19.0	1.03
	50대	308	19.7	295	19.7	1.05
	60대	228	14.6	218	14.5	1.05
	70세 이상	202	12.9	192	12.8	1.06
지역별	서울	311	19.9	290	19.3	1.07
	부산	101	6.5	101	6.7	1.00
	대구	70	4.5	69	4.6	1.01
	인천	94	6.0	88	5.8	1.07
	광주	43	2.8	42	2.8	1.02
	대전	41	2.6	41	2.7	1.00
	울산	33	2.1	33	2.2	1.01
	세종	8	0.5	8	0.5	0.99
	경기	403	25.8	376	25.1	1.07
	강원	48	3.1	46	3.1	1.06
	충북	48	3.1	48	3.2	1.00
	충남	61	3.9	61	4.1	1.00
	전북	53	3.4	52	3.5	1.02
	전남	55	3.5	54	3.6	1.02
	경북	78	5.0	78	5.2	1.01
	경남	96	6.1	96	6.4	1.01
제주	19	1.2	18	1.2	1.06	



## PART 2

###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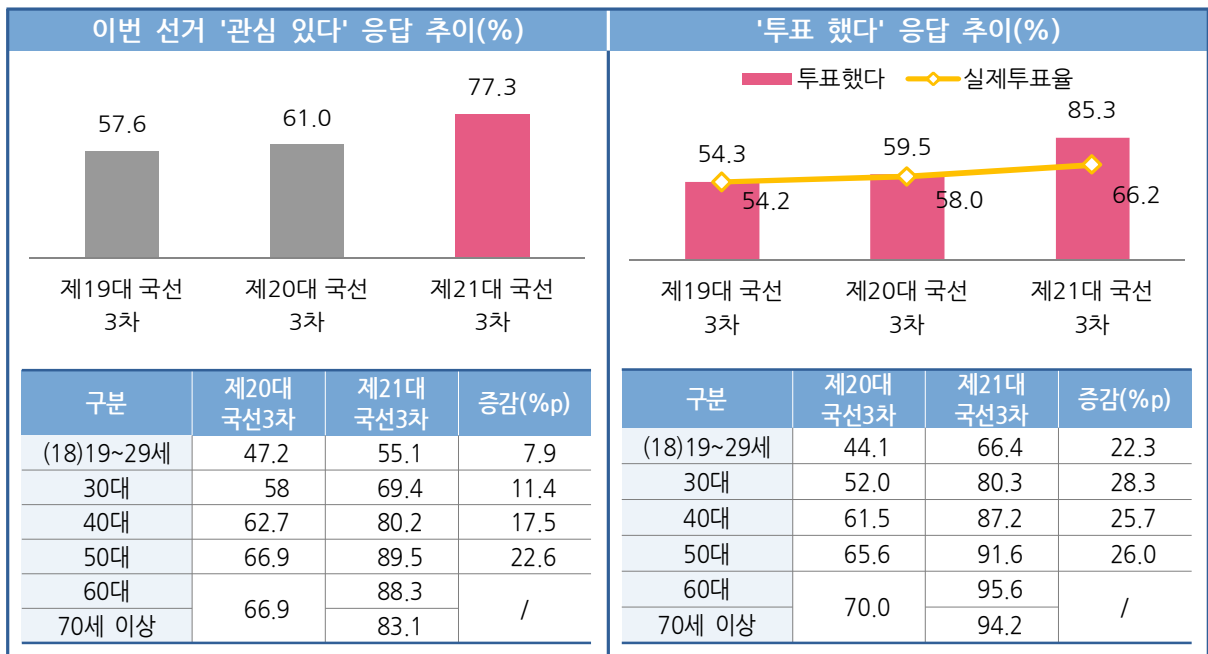


# 제 2 장 | 조사 결과 요약

##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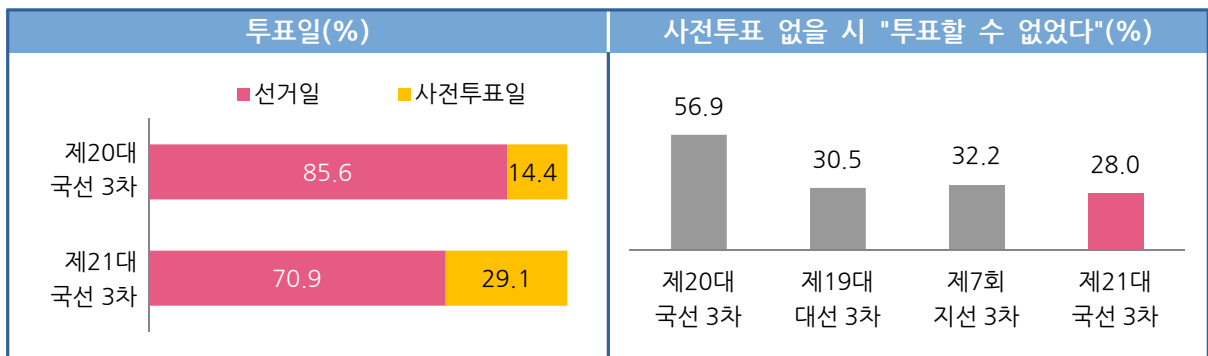
###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여부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 있다' 77.3%, '투표 했다' 85.3%
  - 지난 19, 20대 국선 대비 선거 관심도 및 투표 했다는 응답 증가한 가운데, 실제 투표율 (66.2%) 또한 지난 선거 대비 8.2%p 증가함



### 2. 투표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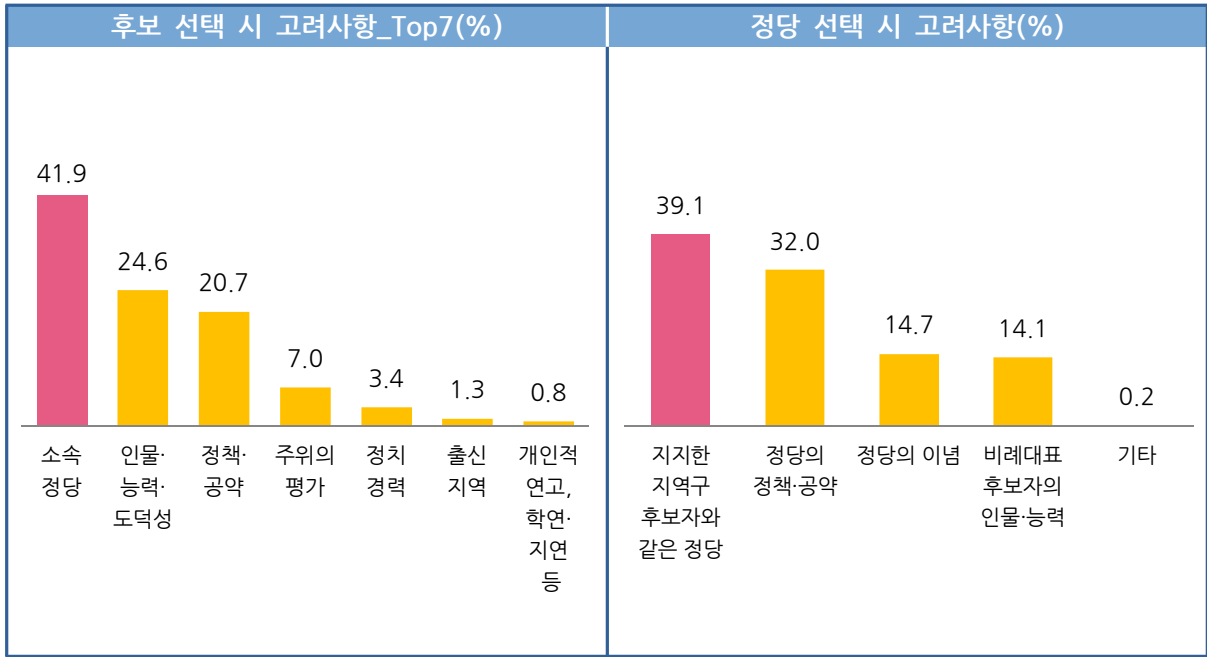
- ▶ 선거일 70.9%, 사전투표일 29.1%
  - 사전투표일 '투표' 응답 20대 국선 대비 14.7%p 증가
  - 사전투표제 없을 경우 '투표할 수 없었다'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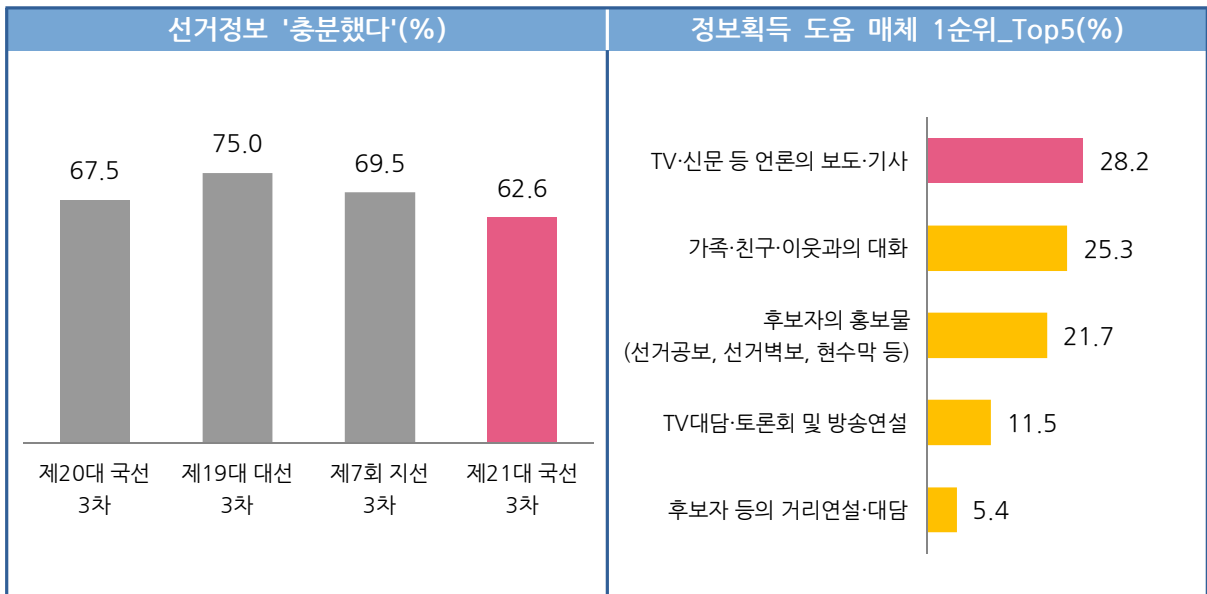
### 3. 투표 후보자/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지지 후보 선택 시 '소속 정당' 고려 41.9%로 가장 많고, 이어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순
  - 후보 선택 시 '소속 정당' 고려 응답 지속 상승(1차: 29.0% → 2차: 31.1% → 3차: 41.9%)
- ▶ 지지 정당 선택 시 '지지한 지역구 후보자와 같은 정당', '정당의 정책·공약' 주로 고려



### 4. 지지 후보 결정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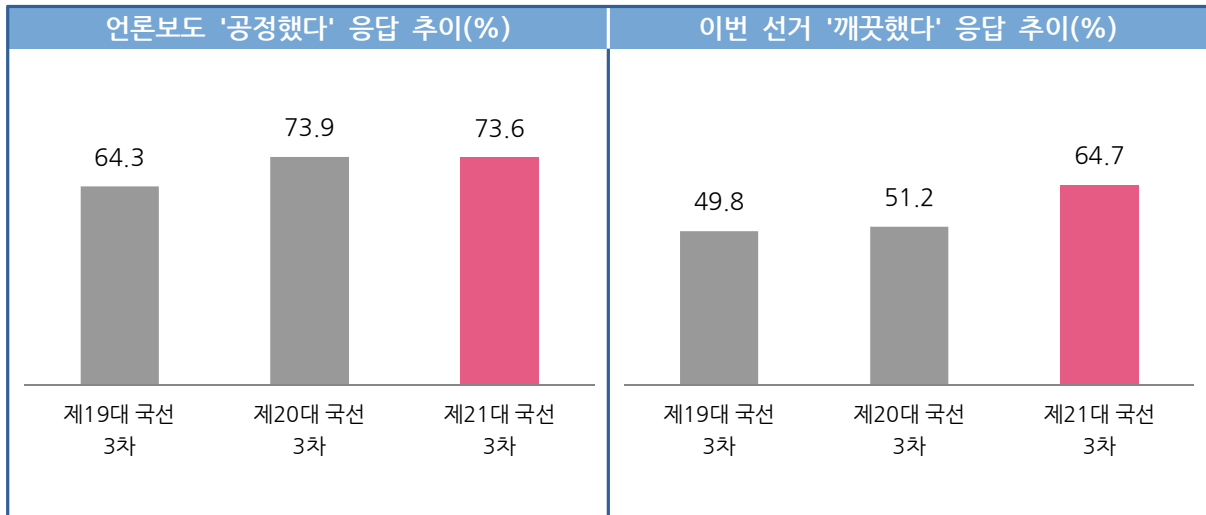
- ▶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62.6%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정보가 '충분했다'고 응답
  - 19대 대선, 7회 지선 대비 '충분했다' 응답 감소 추세 이어져
- ▶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 매체로 '언론의 보도·기사'(28.2%)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이어 '가족·친구·이웃과의 대화', '후보자의 홍보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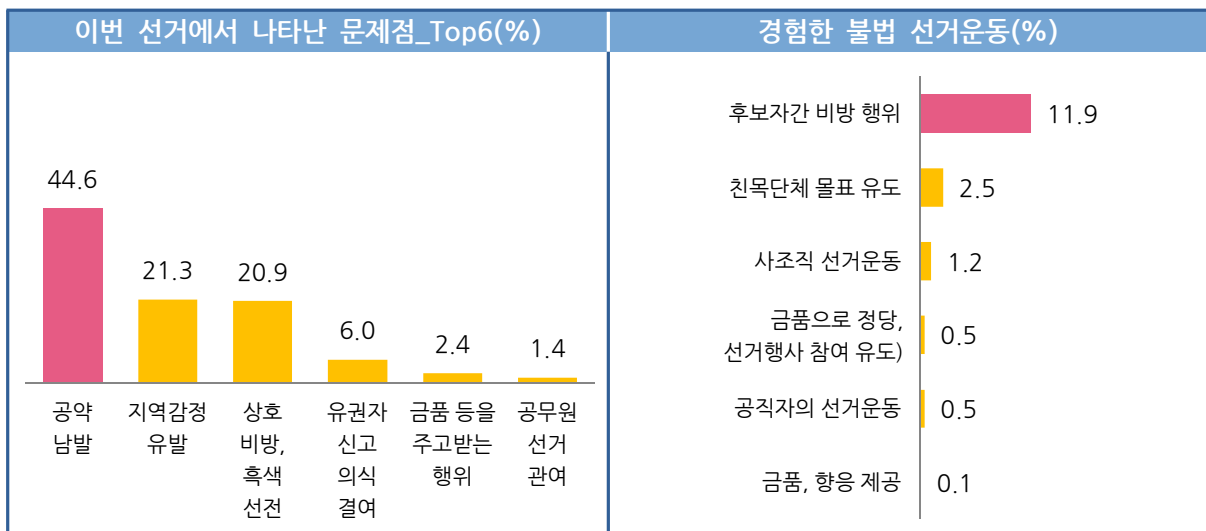
## 5. 선거 공명도 평가

- ▶ 언론보도 '공정했다' 73.6%로 20대 국선과 비슷한 수준
  - 대부분 연령층에서 75% 수준인 가운데, 60대의 긍정평가 67.0%로 상대적으로 낮아
- ▶ 이번 선거 '깨끗했다' 64.7%로 지난 국선대비 13.5%p 증가
  - 깨끗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유권자들의 의식 향상',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가장 많이 꼽아



## 6. 선거 문제점 및 경험한 불법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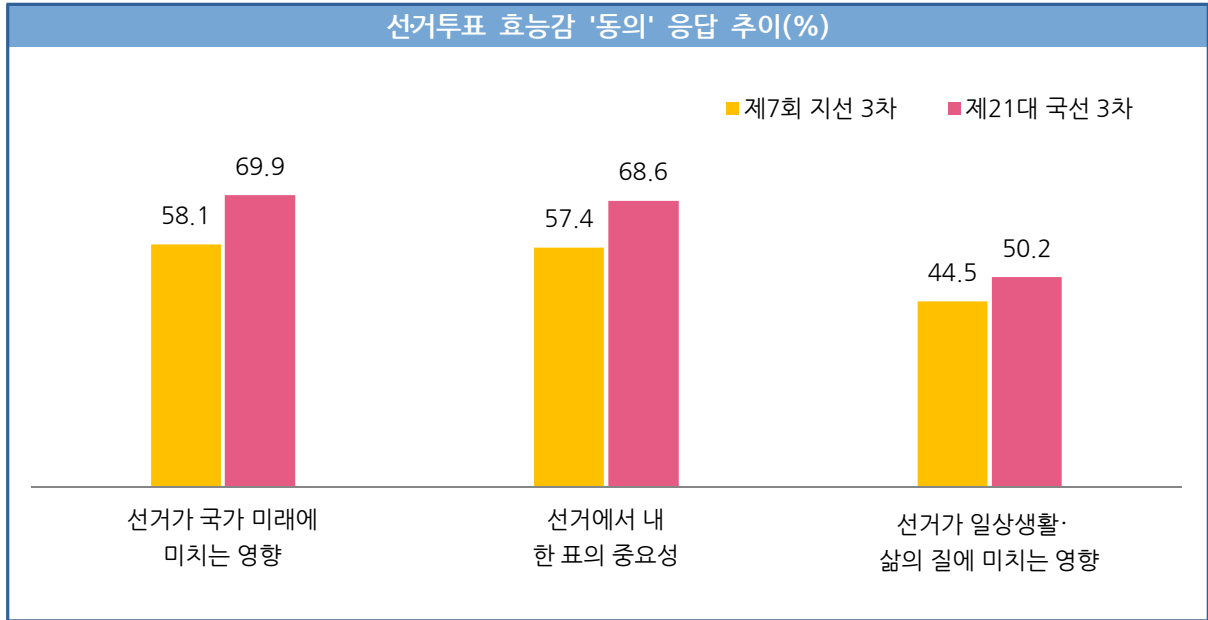
- ▶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비현실적 공약 남발'(44.6%)
- ▶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없어
  - '후보자간 비방행위'(11.9%) 외에는 3% 미만으로 경험을 낮아
  - 불법 선거운동 경험자 대부분이 불법 선거운동 경험 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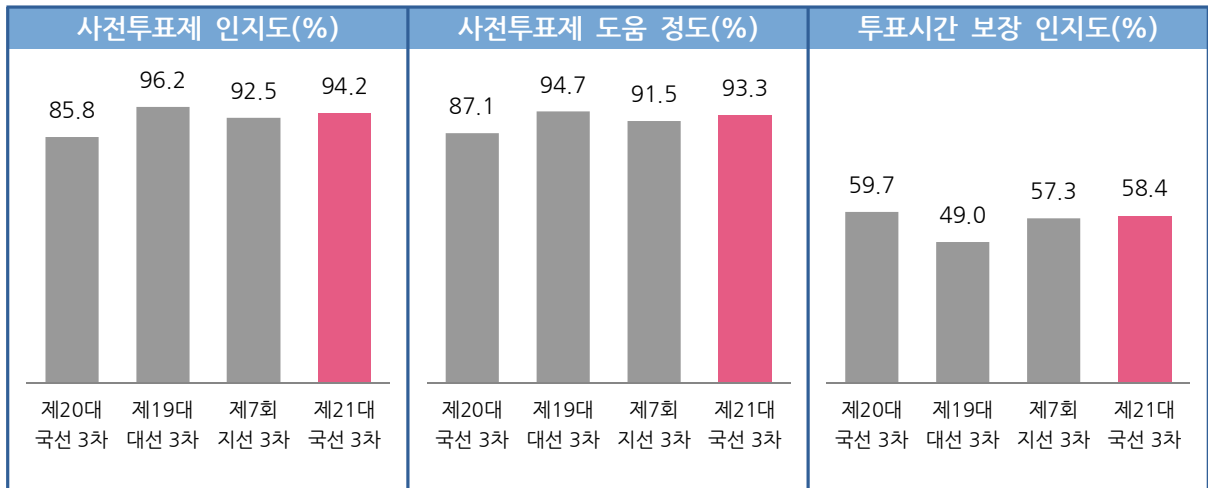
### 7. 투표 효능감

- ▶ ‘선거에서 내 한 표가 결과에 영향 줌’, ‘선거로 국가 미래 달라짐’ 70% 수준으로 투표에 대한 효능감 높아
- ▶ ‘일상생활과 삶의 질 결정’은 50.2%로 타 항목 대비 동의 응답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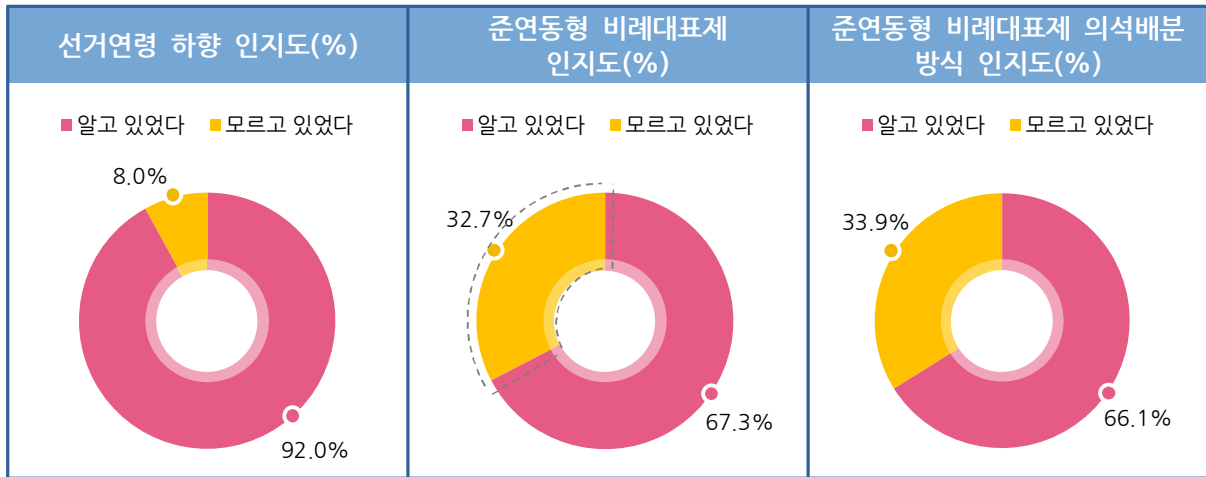
### 8. 사전투표제 인식

- ▶ 사전투표제 ‘알고 있다’ 94.2%, ‘도움이 되었다’ 93.3%로 사전투표제 인지 및 투표율 제고에 대한 공감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투표시간 보장 인지도는 58.4%로 상대적으로 낮음
  - 투표일에 근무한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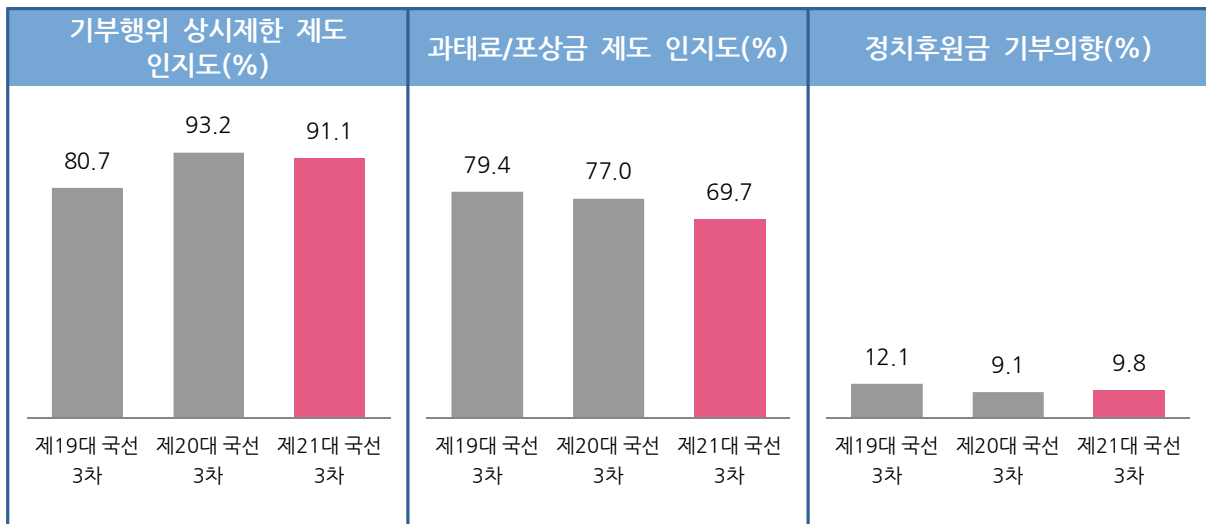
## 9. 선거제도 변경 인지도

- ▶ 선거연령 하향 인지도 92.0%로 높게 나타남
- ▶ 응답자 3명 중 2명(67.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알고 있었다'
  - 인지자 중 66.1%가 의석배분 방식 또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 기타 선거제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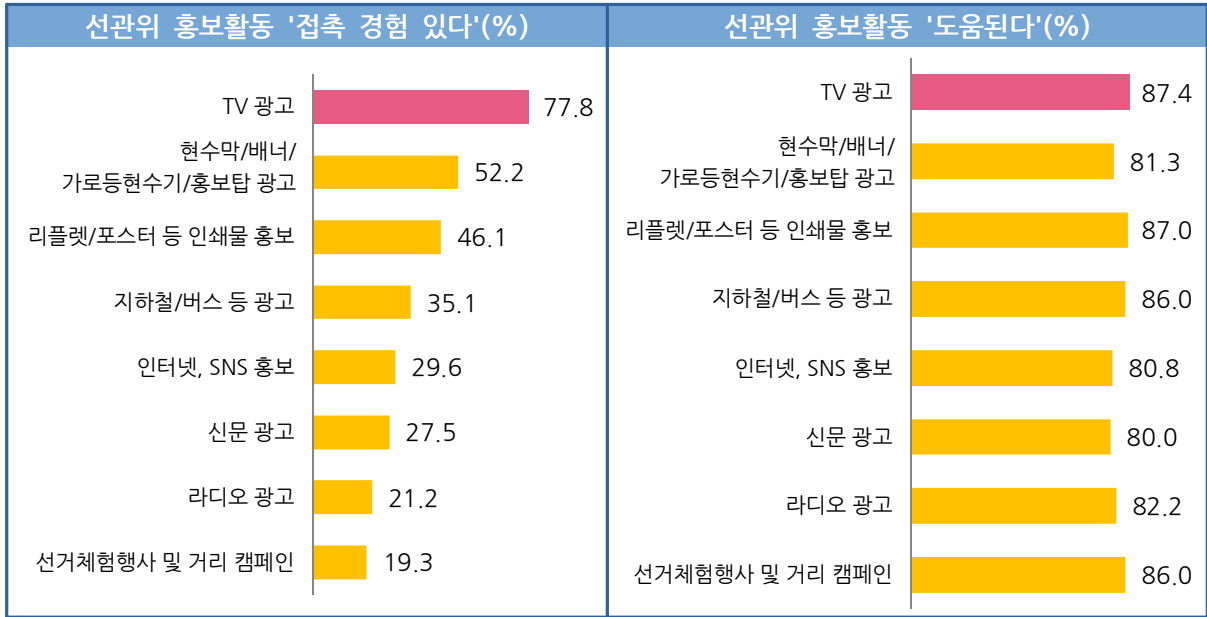
- ▶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 인지도는 91.1%로 전년에 이어 90% 이상으로 나타남
- ▶ 과태료 및 포상금 인지도 69.7%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비 하락세 이어져
- ▶ 정치 후원금 기부의회향은 9.8%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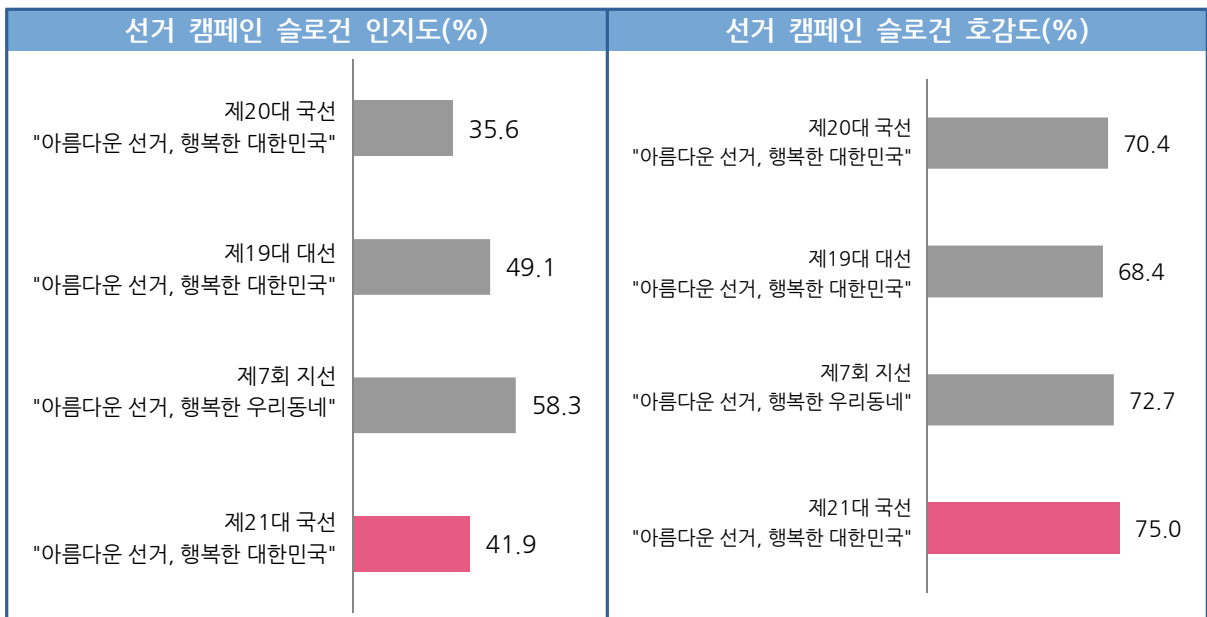


### 11.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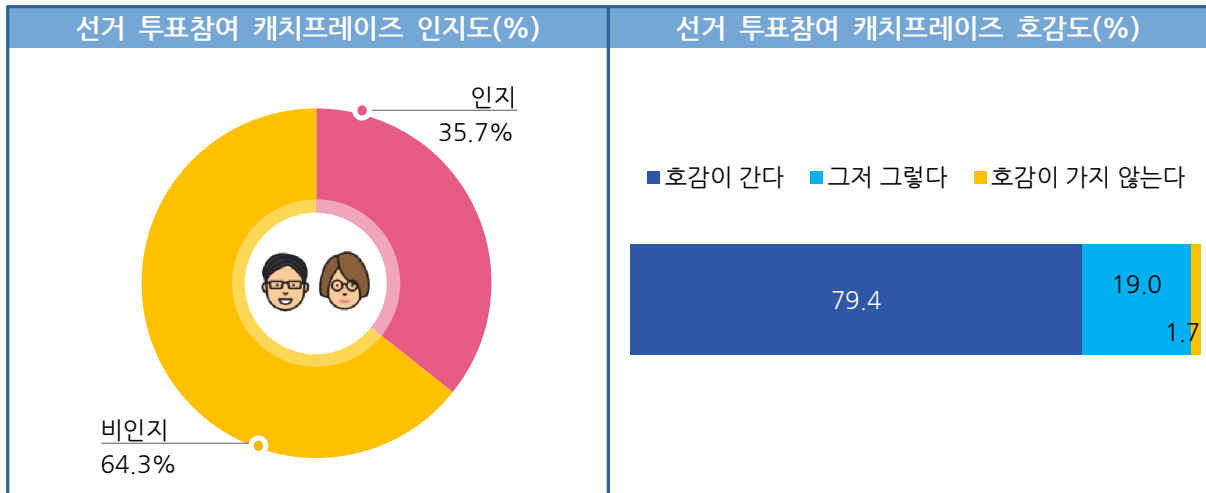
- ▶ 응답자 4명 중 3명(77.8%)은 선관위 'TV 광고' 접촉 경험(77.8%)
  - 이어 '현수막/배너/현수기 광고'(52.2%), '리플렛/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46.1%), '지하철/버스 등 광고'(35.1%) 순으로 나타남
- ▶ 선관위 홍보활동 경험자 대부분이 '도움 된다'고 평가
  - 모든 홍보물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80%이상으로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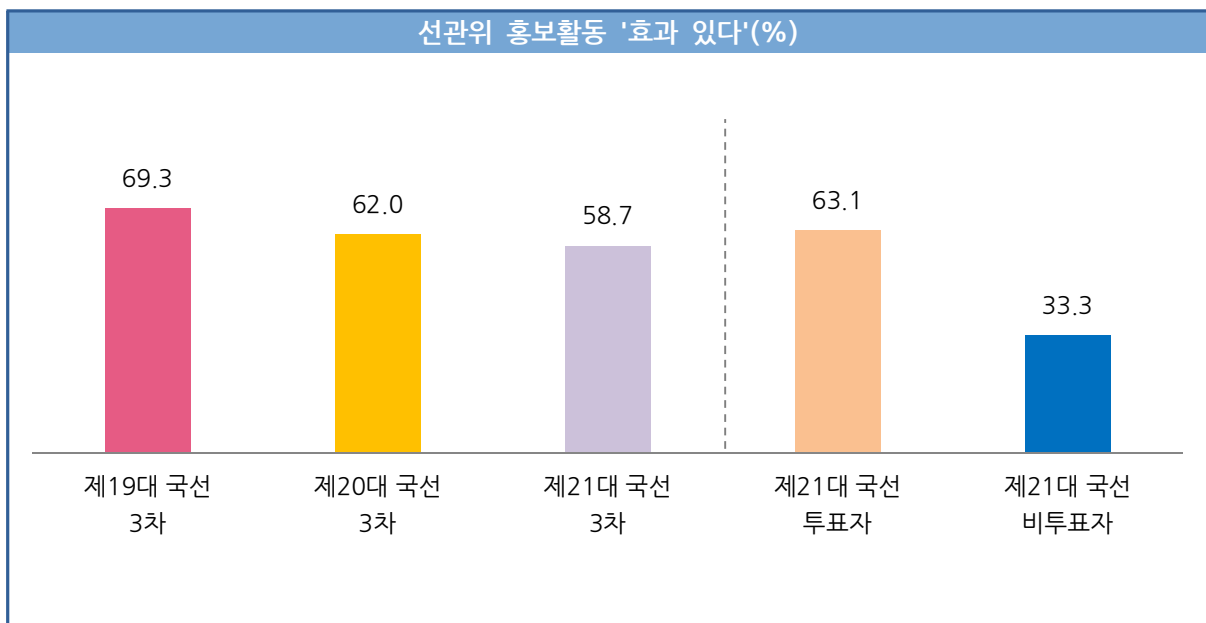
- ▶ 선거 캠페인 슬로건 인지도 41.9%, 인지자 슬로건 호감도 75.0%
  - 지난 19대 대선, 7회 지선 대비 인지도 낮으나, 20대 국선 대비 6.3%p 상승



- ▶ 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인지도 64.3%, 호감도 79.4%  
선거캠페인 슬로건 대비 인지도, 호감도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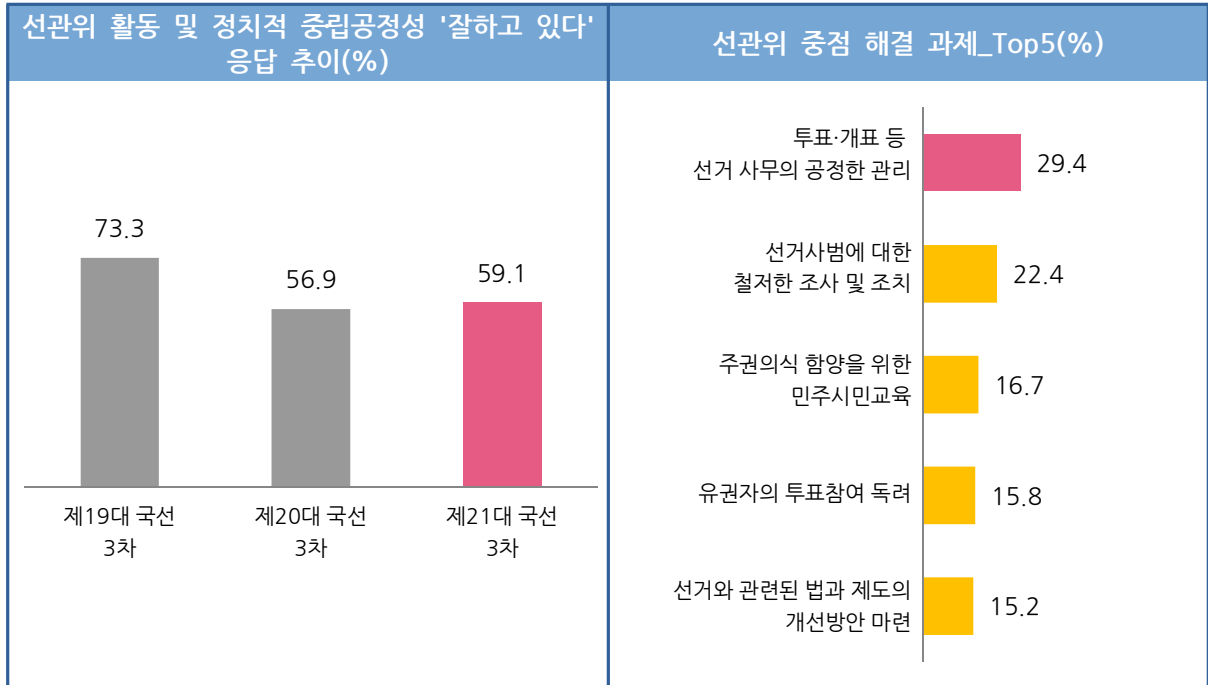
- ▶ 선관위 홍보활동 '효과 있다' 58,7%로 지난 국선 대비 하락세 이어져  
- 선거 투표자(63.1%)와 비투표자(33.3%)간 인식차이 커





## 12.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평가

- ▶ 이번 선거 선관위 활동 및 중립/공정성 긍정평가 59.1%로 20대 국선과 비슷한 수준 - 40~60대의 긍정평가 상대적으로 높아
- ▶ 중점 해결 과제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응답 29.4%로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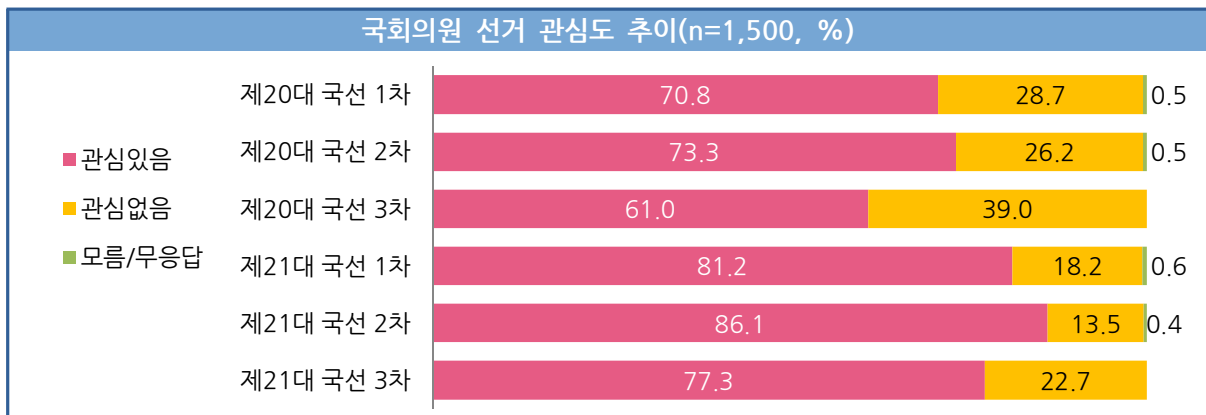
\* 제20대 국선 이후 평가지표 변경(4점척도에서 5점척도로 변경)되어 이전 결과와 직접적 비교 어려움

##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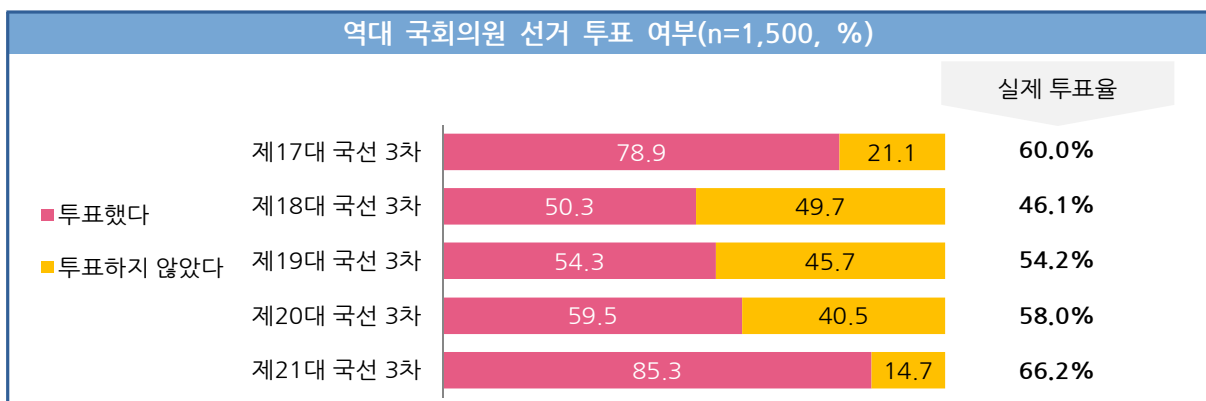
###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행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 있었다'(77.3%), '투표 했다'(85.3%)

- 지난 20대 국선 3차 조사 대비 관심도 및 투표 응답 증가함
- '투표했다' 85.3%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고, 실제 투표율 또한 66.2%로 가장 높게 집계됨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많았다' 25.9%, '조금 있었다' 51.4%로 유권자의 77.3%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지난 20대 국선 대비 모든 계층에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구분	제20대 국선 관심도			제21대 국선 관심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전체	70.8	73.3	61.0	81.2	86.1	77.3
(18)	19~29세	63.3	70.5	47.2	64.3	74.1	55.1
	30대	70.5	68.9	58.0	83.3	82.2	69.4
	40대	70.6	74.8	62.7	87.6	90.9	80.2
	50대	73.5	73.8	66.9	82.7	87.9	89.5
	60대	74.4	76.9	66.9	88.1	91.6	88.3
	70세이상				82.9	92.0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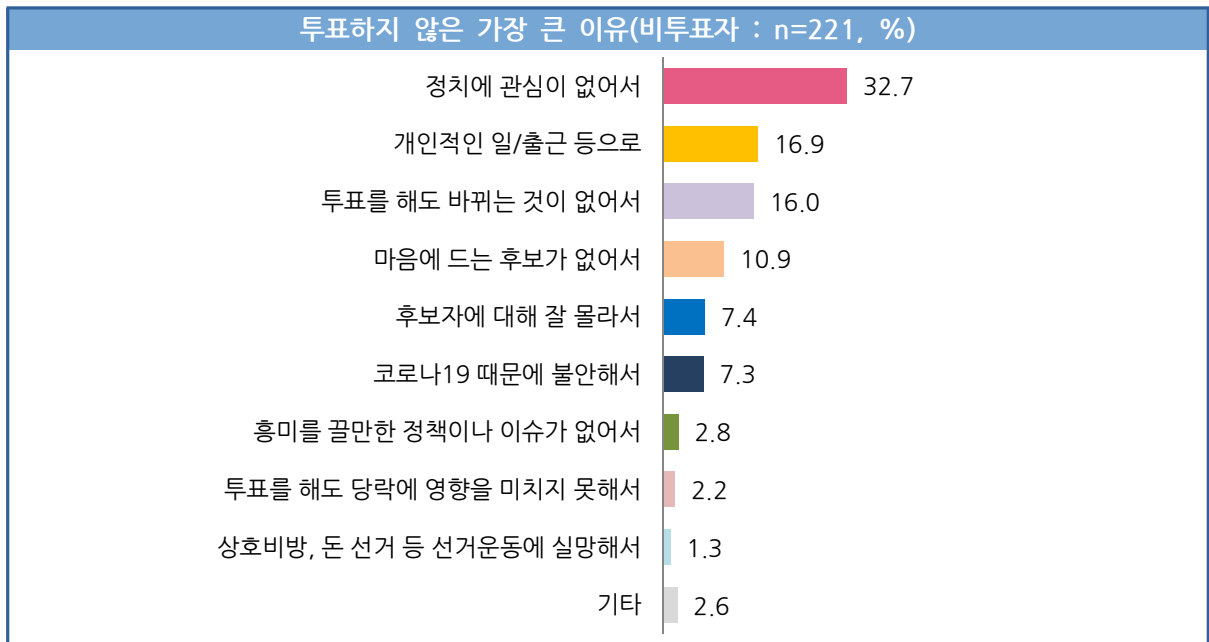




## 2. 투표 하지 않은 이유

### ▶ 투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32.7%)

- 지난 7회 지선에 이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많이 응답됨
- '코로나19로 불안해서'(7.3%)는 1차 조사(14.4%), 2차 조사(19.9%) 대비 응답률 감소함
-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N=221)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2.7%) 지적이 가장 많음.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언급은 16.9%로 두 번째로 응답 많으나, 제19대 대선 이후로 꾸준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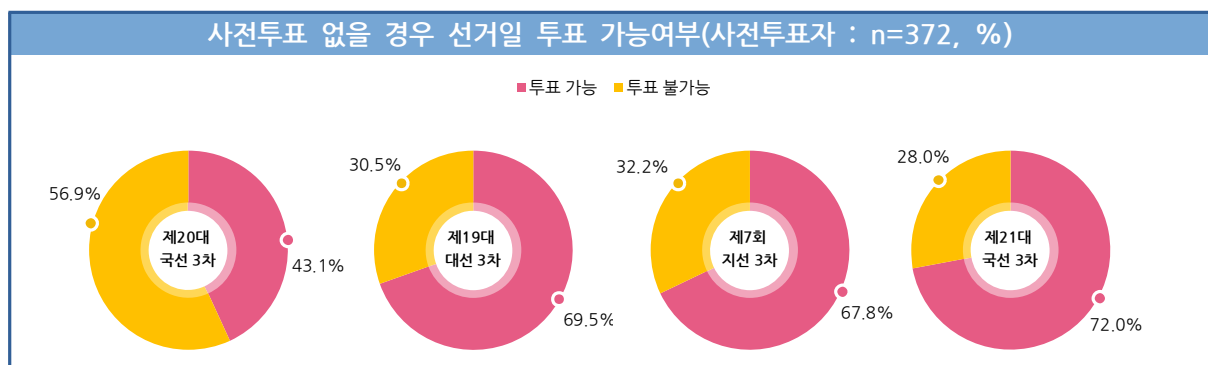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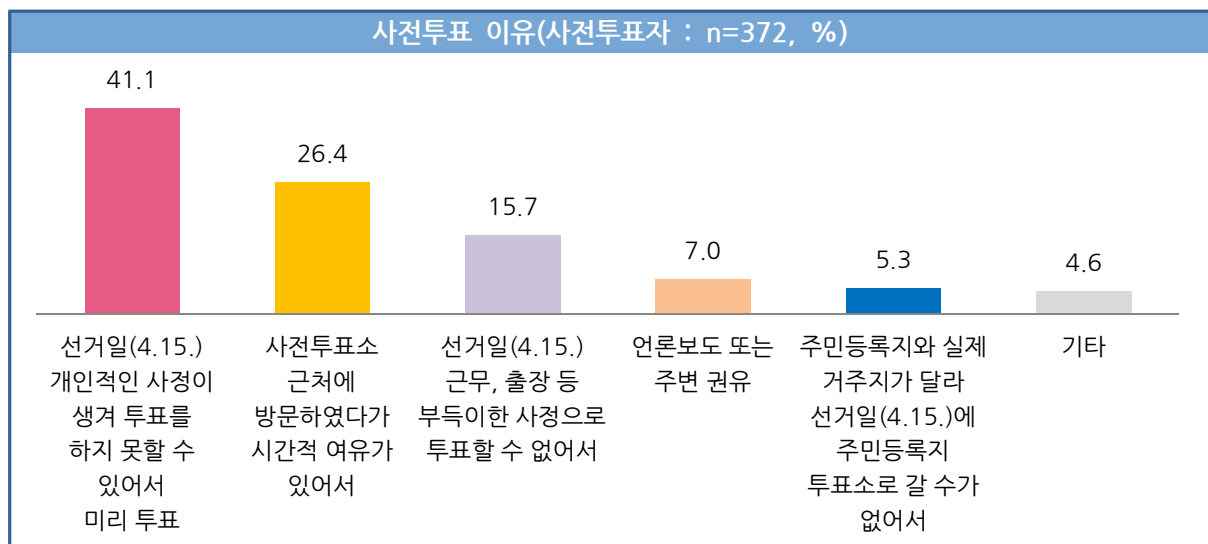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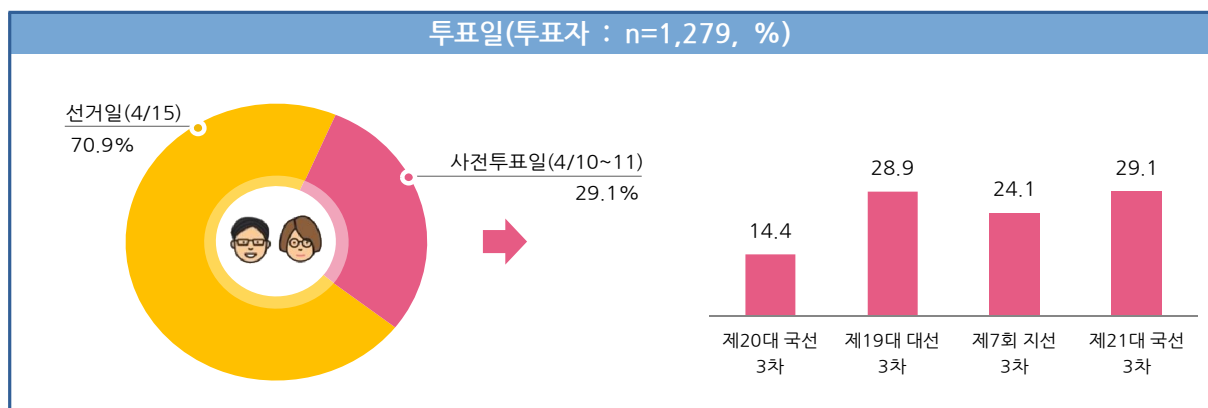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n=607)	(n=325)	(n=545)	(n=221)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8.6	22.6	32.7	32.7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22.0	29.4	27.9	16.9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21.1	14.4	14.9	16.0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14.0	23.2	10.8	10.9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5.3	1.8	5.5	7.4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	-	-	7.3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	3.9	0.9	2.9	2.8
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3.6	3.4	3.9	2.2
상호비방, 돈 선거 등 선거운동에 실망해서	0.2	1.2	0.4	1.3
기타	1.3	3.1	1.0	2.6



### 3. 투표 참여일 및 사전투표 현황

#### ▶ 투표자 3명 중 1명은 사전투표일에 투표

- 사전 투표자는 18~29세(34.4%)와 50대(31.6%)가 타 연령층보다 높음
- 사전투표자 중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8.0%로, 19대 대선(30.5%), 7회 지선(32.2%)과 비슷한 수준
- 지난 선거 이어 '선거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투표를 하지 못할 수 있어서'(41.1%)가 주된 사전 투표 이유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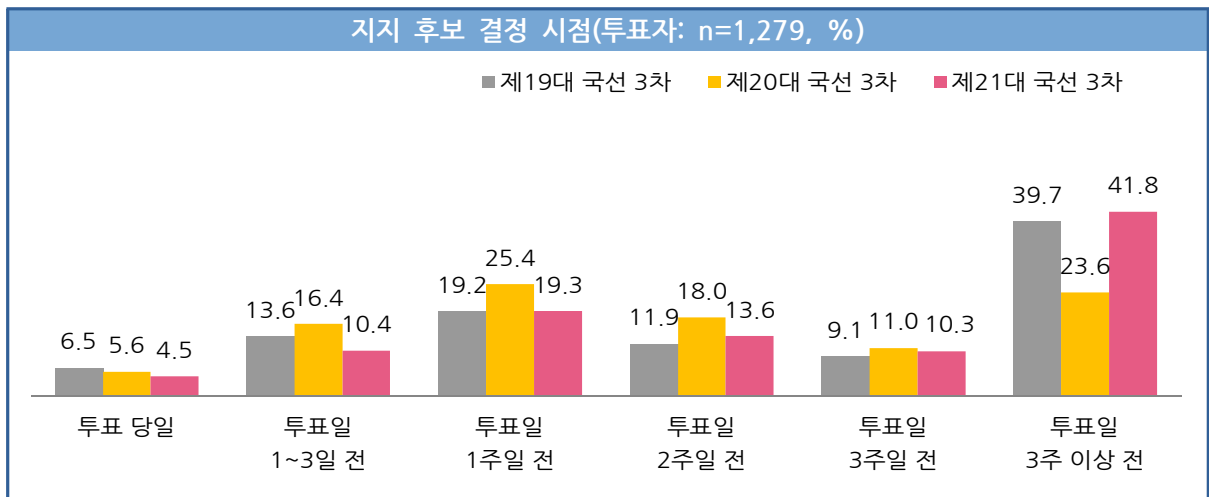


#### 4. 지지 후보 결정 시점 및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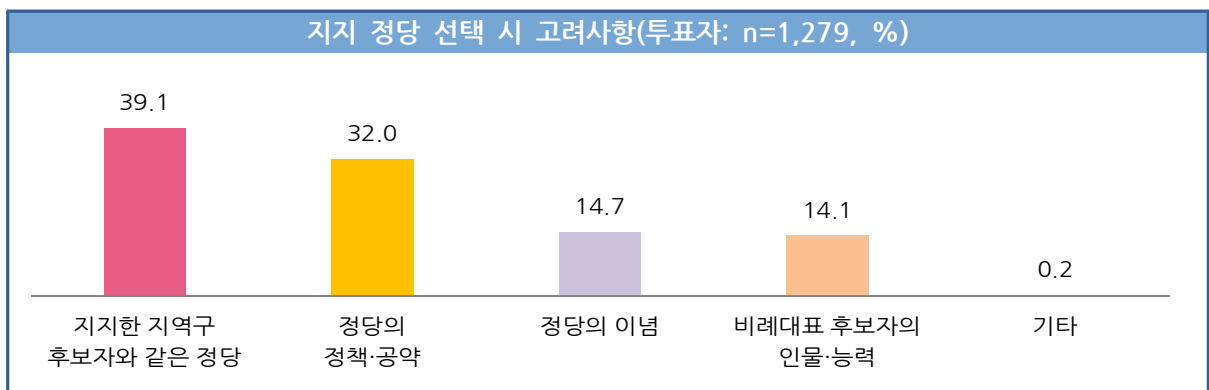
▶ 응답자의 41.8%는 '투표일 3주 이상 전' 결정, '소속 정당' 가장 중요

- 20대 국선 대비 '투표일 3주 이상 전' 18.2%p 증가해, 19대 대선과 비슷한 수준
- 지지 후보자 선택 시 '소속 정당' 중시 41.9%로 가장 많아
- 지지 정당 선택 시에도 '지지한 지역구 후보와 같은 정당'(39.1%)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후보자, 비례후보 투표 모두 정당을 가장 중시함

·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투표일 3주 이상 전' 결정 응답이 증가하고, '소속 정당'이 중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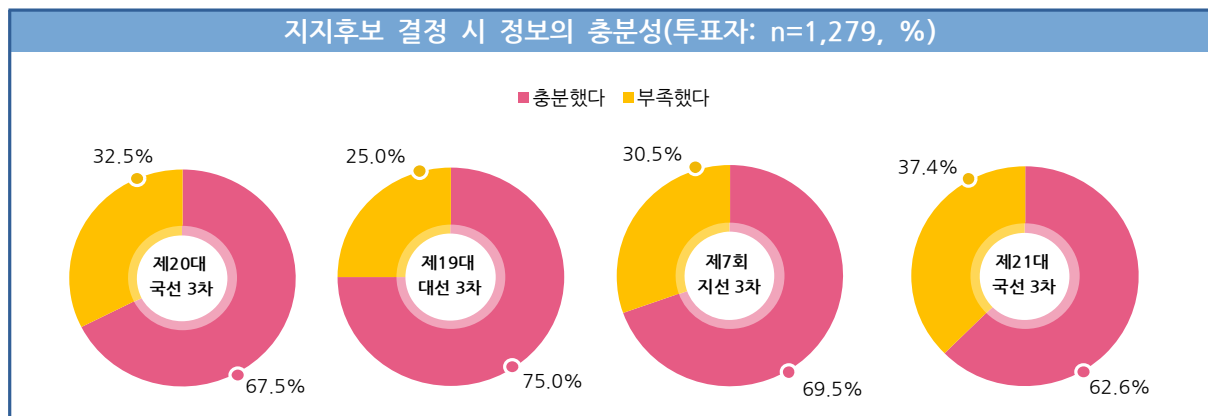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투표자: n=1,279,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소속 정당	24.2	11.4	33.7	41.9
인물·능력·도덕성	37.6	45.5	33.9	24.6
정책·공약	22.4	30.8	24.9	20.7
주위의 평가	6.5	4.7	3.5	7.0
정치 경력	5.3	5.3	2.3	3.4
출신 지역	3.0	1.1	1.2	1.3
개인적 연고	1.0	0.7	0.4	0.8
기타	-	0.5	0.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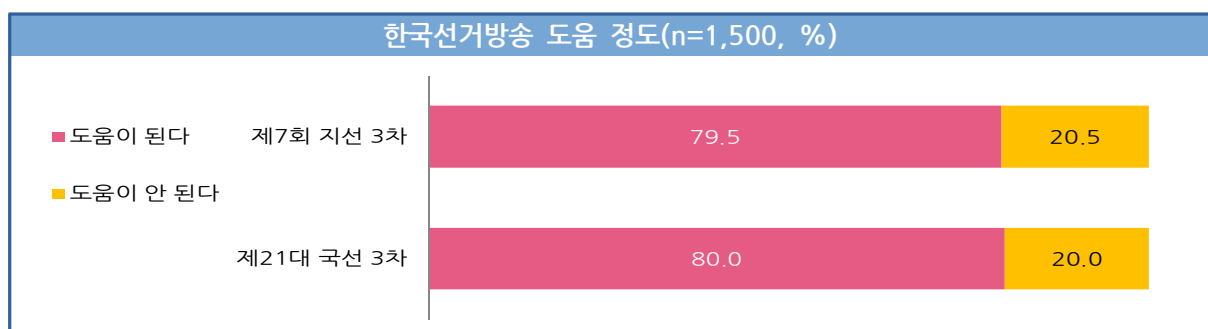


## 5. 선거 관련 정보 획득

- ▶ 응답자의 62.6%, 지지후보 결정 시 정보 '충분했다'
- ▶ 가장 도움이 된 매체로 'TV, 신문 등 언론의 보도 및 기사' 꼽아
  - 7회 지선(69.5%) 대비 '충분했다' 응답 6.9%p 감소해, 제19대 대선(75.0%) 이후 감소세 이어져
  -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한국선거방송이 '도움 된다'는 응답은 80.0%(매우 6.7% + 어느 정도 73.3%)로 지난 선거와 비슷한 수준
  -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응답의 감소세 이어짐(19대: 19.2% → 20대: 14.3% → 21대 11.5%)



지지정당,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된 정보 획득 경로 _1순위 (투표자: n=1,279, %)	제19대 국선 3차	제20대 국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TV·신문 등 언론의 보도·기사	23.6	32.2	28.2
가족·친구·이웃과의 대화	28.9	24.4	25.3
후보자의 홍보물	20.7	14.3	21.7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19.2	15.6	11.5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	4.3	7.7	5.4
후보자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2.2	3.4	3.9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	-	1.8	2.7
선관위 홈페이지	1.0	0.4	0.6
기타	-	0.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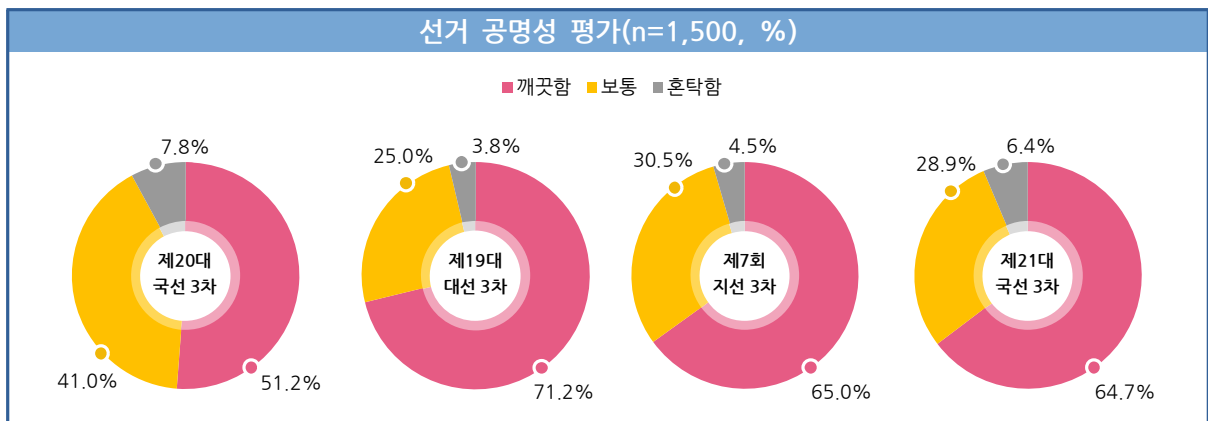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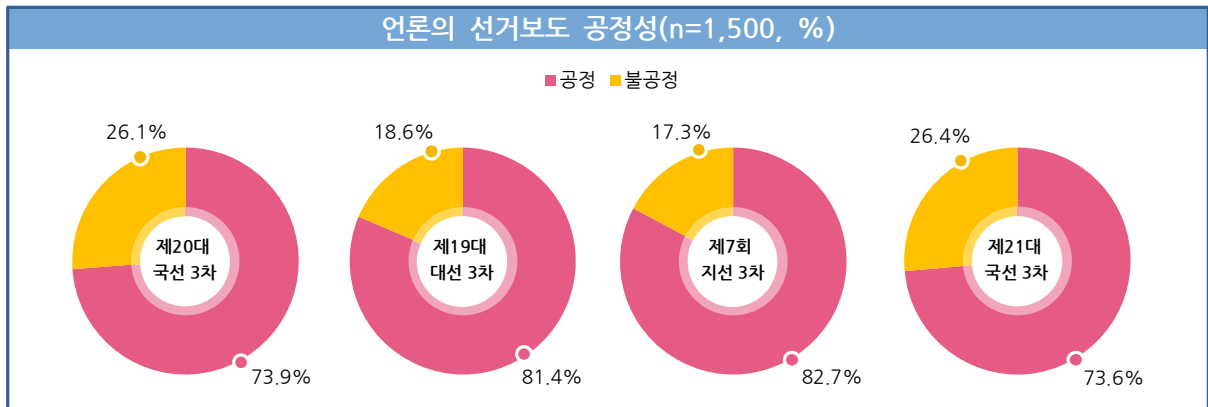
## 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성 평가

▶ 언론보도 ‘공정했다’ 73.6%, 이번 선거 ‘깨끗했다’ 64.7%

- 언론 보도가 ‘공정했다’는 응답 7회 지선 대비 9.1%p 감소

·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론보도가 ‘공정했는지 묻은 결과, ’매우 공정했다‘ 4.2%, ’대체로 공정했다‘ 69.4%로 긍정 평가 73.6%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의 긍정평가 67.0%로 타 연령층 대비 낮음

·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한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했다’ 8.2%, ‘다소 깨끗했다’ 56.5% 등 유권자 3명 중 2명(64.7%)이 공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공명성 긍정 평가는 20대 국선(51.2%)보다 높고, 7회 지방선거의 65.0%와 유사한 수준임. 공명성 긍정평가는 18~29세에서 58.1%로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선거 공명성 평가 (n=1,500,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1차	2차	3차
깨끗함	51.2	71.2	65.0	49.8	55.8	64.7
보통	41.0	25.0	30.5	-	-	28.9
혼탁함	7.8	3.8	4.5	32.3	26.8	6.4
모름/무응답	-	-	-	17.9	17.4	-

## 7. 선거 공명성 평가 이유

- ▶ 공명성 긍정 평가 이유 '유권자들의 의식 향상'
-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 선거가 공명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1+2순위 기준 65.3%)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이어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법 준수'(39.7%),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감시·단속'(31.7%)을 꼽음
- 지난 선거와 비교 했을 때, 선거가 공명하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응답은 감소한 반면,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응답은 증가해, 부정 평가 1순위를 차지함. 이는 앞선 언론의 공정성 평가가 하락한 것과 맥을 같이함.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 및 조사·단속' 응답 또한 7회 지선 대비 증가함

공명했다고 평가하는 이유 (긍정평가자 : n=970,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	39.3	60.9	50.7	74.3	45.7	68.5	44.9	65.3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법 준수	24.7	49.7	30.3	56.8	32.6	52.7	18.9	39.7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감시·단속	17.1	35.2	8.2	25.3	10.6	28.7	10.8	31.7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	5.7	16.9	-	-	1.8	8.0	7.5	17.9
언론의 공정한 보도	3.7	11.1	5.2	16.7	3.5	10.3	8.7	17.8
검찰·경찰의 선거사범 적극적 단속	7.4	18.9	2.7	9.7	4.2	12.7	5.6	14.1
공무원들의 관공개입이 줄어서	2.1	5.4	2.8	6.3	1.3	5.5	3.3	8.9
기타	-	-	0.1	0.2	0.3	0.3	0.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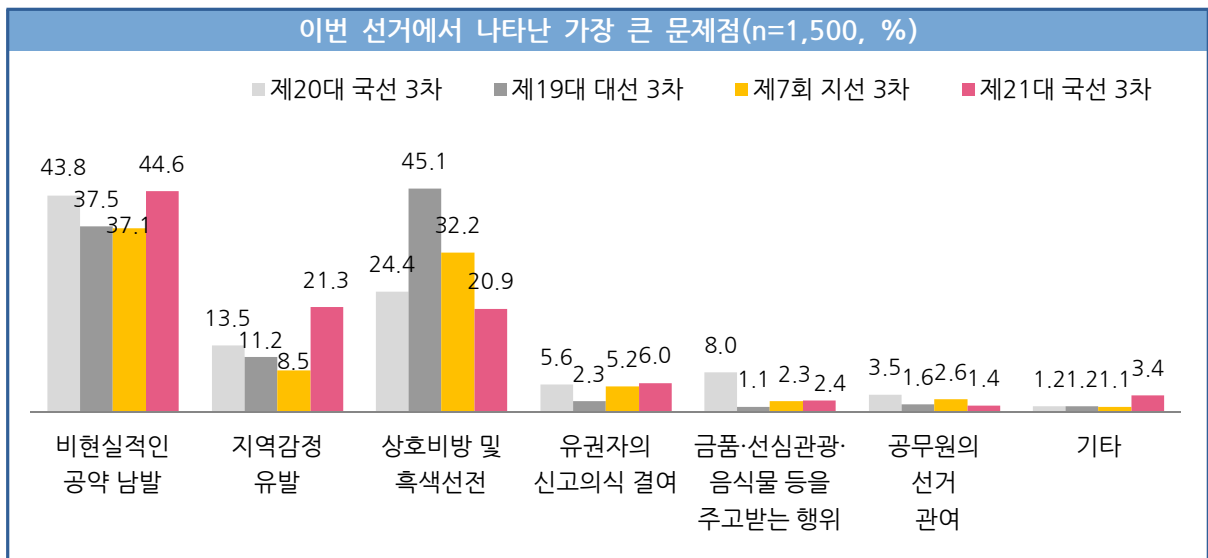
공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유 (부정평가자 : n=96,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14.7	33.1	32.8	63.5	27.9	57.4	35.9	58.2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33.3	50.6	55.0	81.2	42.6	60.3	30.5	49.3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 및 조사·단속	10.5	25.7	1.7	5.1	1.5	13.2	12.1	26.7
검찰·경찰의 소극적인 조사·단속	4.9	16.8	3.5	18.8	10.3	16.2	6.8	17.6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12.5	20.2	1.8	5.3	4.4	8.8	2.9	13.6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과 유권자들의 금품수수	9.3	17.9	3.5	7.0	8.8	13.2	6.9	9.9
후보자 팬클럽, 산악회 등 사조직 개입	10.5	18.2	1.7	8.7	2.9	7.4	2.0	6.1
기타	4.3	8.8	-	3.5	1.6	2.9	3.0	6.0



### 8.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44.6%)

-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은 20대 국선(43.8%), 7회 지선(37.1%)에 이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공명선거를 위해서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법 준수’(23.0%), ‘선거사범 강력한 단속·처벌’(22.7%), ‘언론기관·사회단체 등의 올바른 여론조성’(20.0%)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공명 선거를 위해 필요한 과제(n=1,500,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법 준수	31.1	30.5	32.7	23.0
선거사범 강력한 단속·처벌	10.7	11.7	13.5	22.7
언론기관·사회단체 등의 올바른 여론조성	27.3	35.0	28.1	20.0
위법행위 후보자 비투표	19.7	13.8	15.9	17.0
선관위의 적극적 공명 선거 홍보	11.0	8.8	9.7	16.8
기타	0.2	0.2	0.1	0.5

## 9. 불법 선거운동 경험 및 대응

▶ 경험한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간 인신공격·비방·흑색선전’ 11.9%로 가장 많아

- 기타 불법 선거운동 경험은 3% 미만으로 낮은 수준
- 불법 선거운동 경험자 대부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
- 이번 선거에서 경험한 불법 선거운동 경험을 물어본 결과, ‘후보자간 인신공격·비방·흑색선전’이 11.9%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선거 대비 감소함. 그 외의 불법 선거운동 경험률은 3%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불법 선거운동 경험 '있음'(n=1,500,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후보자간 인신공격·비방·흑색선전 행위	15.1 (n=227)	32.6 (n=489)	25.9 (n=389)	11.9 (n=179)
팬클럽, 산악회, 포럼 등 사조직의 선거운동 관여행위	5.5 (n=83)	3.9 (n=58)	2.8 (n=42)	1.2 (n=17)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종교단체 등에서 누구를 찍어주자고 하는 행위	6.4 (n=97)	5.8 (n=87)	3.6 (n=54)	2.5 (n=37)
금품으로 정당, 선거행사 참여 유도	2.0 (n=30)	1.3 (n=19)	1.1 (n=17)	0.5 (n=8)
돈봉투·선물·선심관광·음식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	1.6 (n=24)	0.5 (n=8)	1.3 (n=19)	0.1 (n=1)
공무원,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행위	1.9 (n=29)	1.1 (n=17)	1.5 (n=23)	0.5 (n=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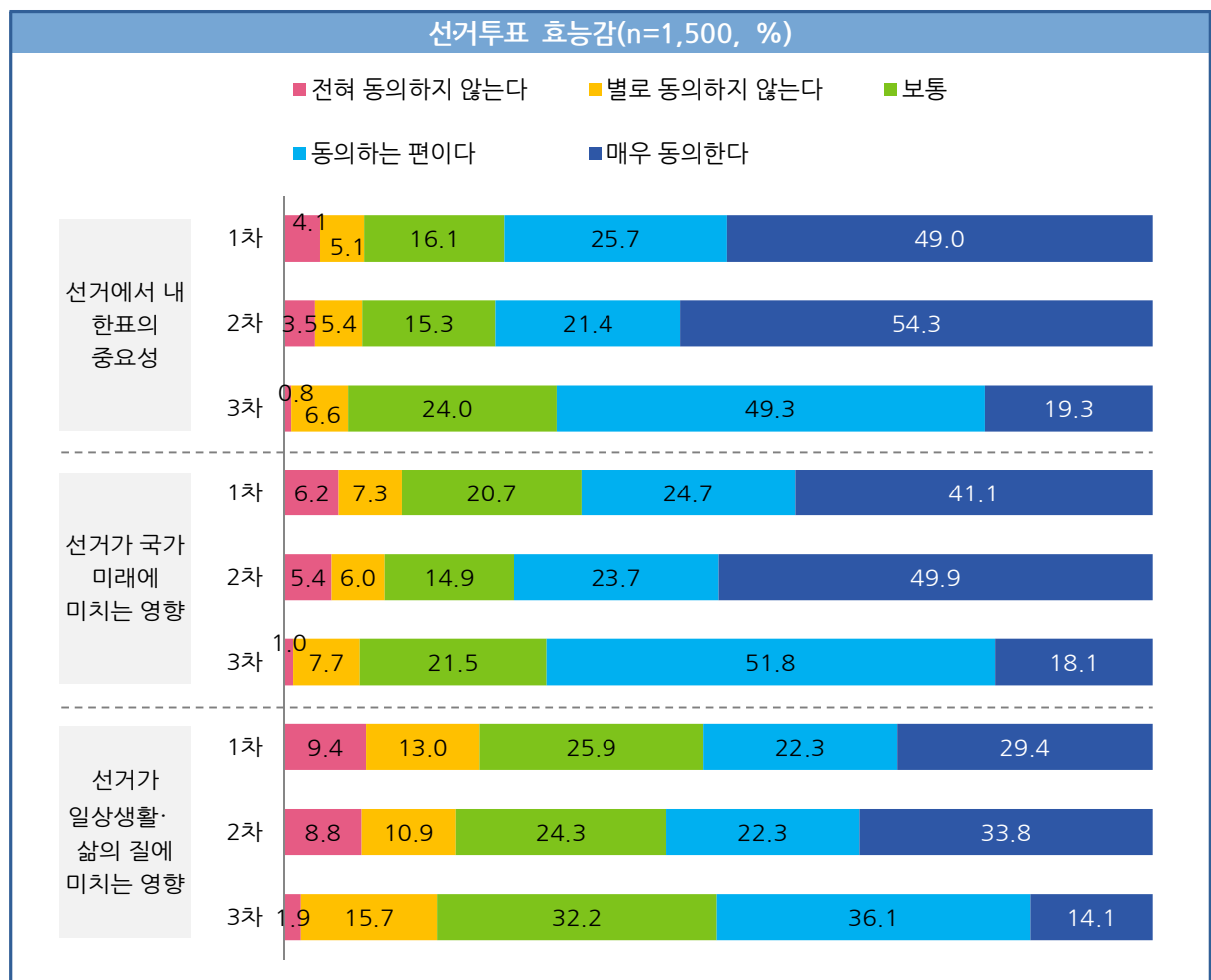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후보자간 인신공격·비방· 흑색선전 행위	[경험있음 응답자 사례수]	227	489	389	179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91.3	89.9	89.2	88.2
	SNS로 공유	3.0	3.7	1.3	5.9
	경찰·검찰에 신고	0.8	0.8	1.0	2.2
	항의 및 제지	0.9	1.6	1.5	1.7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2.0	1.6	4.9	0.6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0.4	0.4	0.8	0.6
	기타	1.6	2.0	1.3	2.1
팬클럽, 산악회, 포럼 등 사조직의 선거운동 관련행위	[경험있음 응답자 사례수]	83	58	42	17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94.9	93.1	81.0	83.1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	4.8	5.7
	SNS로 공유	1.1	1.7	2.3	5.7
	항의 및 제지	4.0	1.8	7.1	5.4
	경찰·검찰에 신고	-	-	2.4	-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	-	2.4	-
	기타	-	3.4	-	-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종교단체 등에서 누구를 찍어주자고 하는 행위	[경험있음 응답자 사례수]	97	87	54	37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87.9	94.3	87.0	97.3
	항의 및 제지	3.6	1.2	3.7	2.7
	경찰·검찰에 신고	-	-	1.9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5.0	-	1.9	-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2.6	1.1	1.8	-
	SNS로 공유	0.9	2.3	3.7	-
	기타	-	1.1	-	-
금품으로 정당, 선거행사 참여 유도	[경험있음 응답자 사례수]	30	19	17	8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83.7	89.4	82.4	100.0
	경찰·검찰에 신고	-	-	-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2.2	-	5.9	-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	-	-	-
	항의 및 제지	8.2	5.3	5.9	-
	SNS로 공유	3.1	5.3	5.8	-
	기타	2.8	-	-	-
돈봉투·선물·선심관광 ·음식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	[경험있음 응답자 사례수]	24	8	19	1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	-	100.0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80.9	87.4	78.9	-
	경찰·검찰에 신고	-	-	5.3	-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10.6	-	5.3	-
	항의 및 제지	8.5	-	10.5	-
	SNS로 공유	-	12.6	-	-
	기타	-	-	-	-
공무원,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행위	[경험있음 응답자 사례수]	29	17	23	8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100.0	77.5	87.0	100.0
	경찰·검찰에 신고	-	-	4.3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5.8	-	-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	-	4.3	-
	항의 및 제지	-	16.7	-	-
	SNS로 공유	-	-	-	-
	기타	-	-	4.4	-



## 10. 투표 효능감

### ▶ 투표 효능감,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지방선거 대비 상승함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세 질문 모두 1차, 2차 조사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7회 지방선거 대비 증가함. 특히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동의하는 비율 60% 후반대로, 투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효능감 보임
- 세 개 질문으로 알아본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69.9%,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68.6%,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50.2% 등 세 측면 모두 지방선거 대비 증가하며 동의자가 더 많음.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및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대비 '선거가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동의하는 비율 및 지난 지방선거 대비 증가폭 상대적으로 적음



선거투표 효능감 '동의' (%)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증감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73.2	58.1	69.9	11.8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1.0	57.4	68.6	11.2
선거가 일상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6.8	44.5	50.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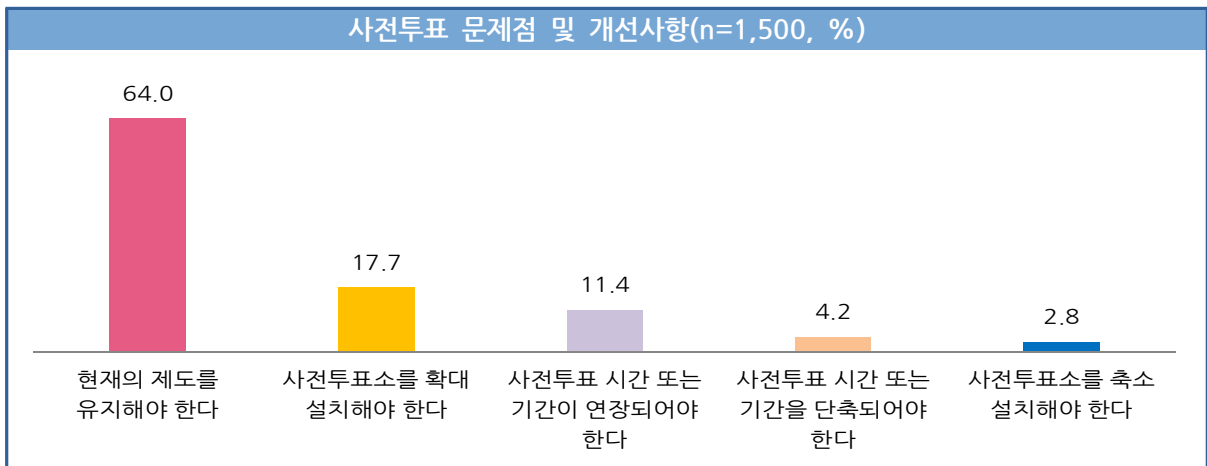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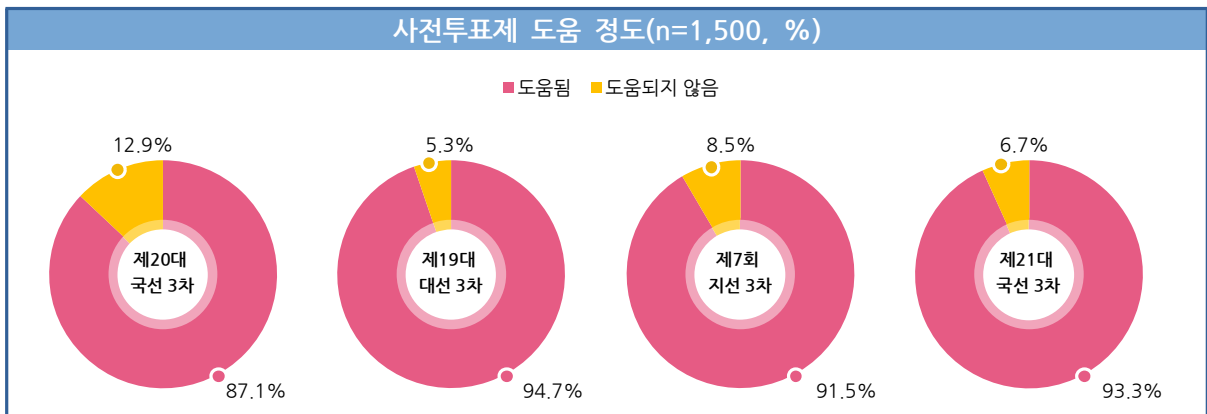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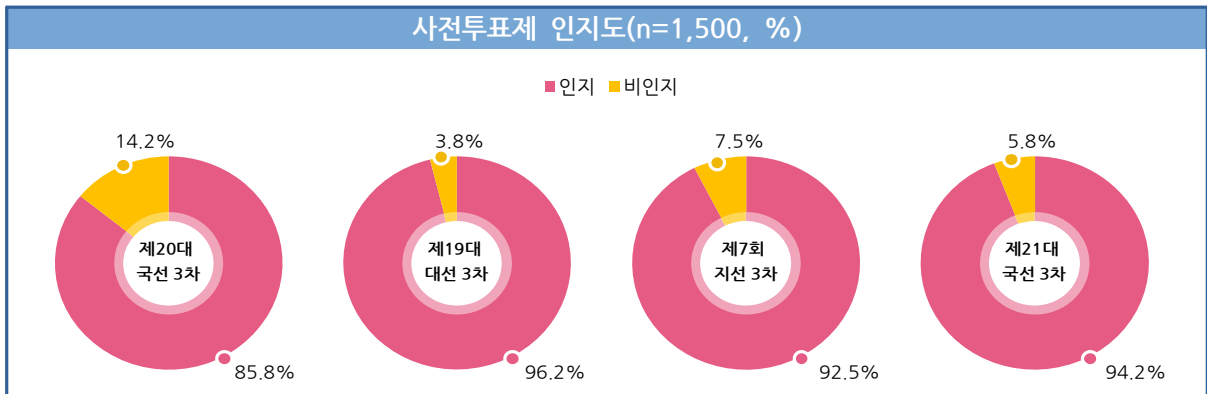


### 11. 사전투표제 관련 인식

▶ 응답자 10명 중 9명, 사전투표제 ‘알고 있다’(94.2%), ‘도움 된다’(93.3%)

- 유권자 대부분(94.2%)이 사전투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93.3%)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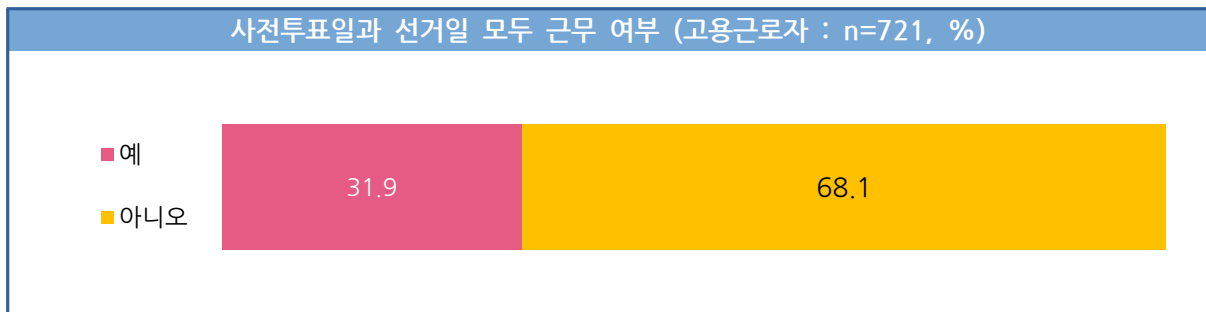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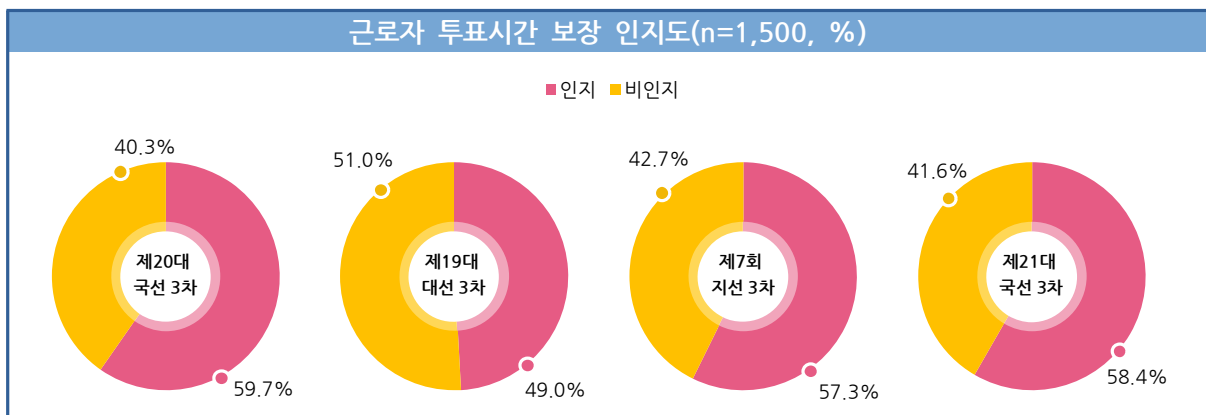
· 현행 사전투표제의 개선점으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64.0%로 절반 이상인 가운데,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17.7%), ‘사전투표 시간 또는 기간 연장’(11.4%) 순으로, 사전투표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축소(시간 또는 기간 단축: 4.2%, 투표소 축소: 2.8%)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인식

###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인지도 58.4%

-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8.4%로, 지난 7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되어 근로 중인 응답자 728명 중 31.9%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했다고 응답함. 이 중 15.6%는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고용주를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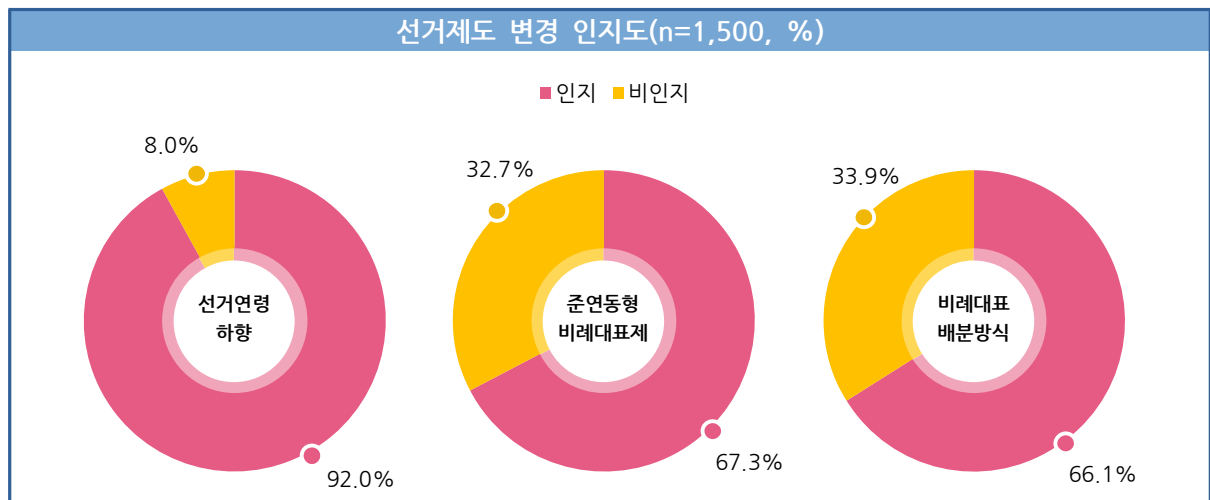


구분	선거일/사전투표일 모두 근무 여부(고용근로자 : n=721)							
	근무하지 않음	근무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여부(투표일 근무자 : n= 230)				투표시간 비보장 고용주 신고 (비보장 응답자 : n=36)	
			적극적 보장	형식적 보장	보장해주지 않음	신고 여부		
						신고함	신고하지 않음	
응답 비율	68.1	31.9	60.2	24.2	15.6	-	100.0	



### 13. 선거제도 변경 인지도

- ▶ 응답자 대부분이 선거 연령 하향 인지, ‘알고 있었다’ 92.0%,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도 67.3%... 인지자 3명 중 2명은 배분 방식 또한 알고 있어
- 응답자 대부분이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70대 이상(79.3%)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지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번선거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67.3%로, 선거연령 하향 대비 인지도 낮은 가운데, 인지자 중 배분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1%로 나타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8~29세(53.0%), 70세 이상(52.0%)에서 50% 초반으로 타 연령층 대비 낮게 나타남. 18~29세 응답자들의 비례대표 배분방식 인지도 또한 57.0%로 타 연령층 대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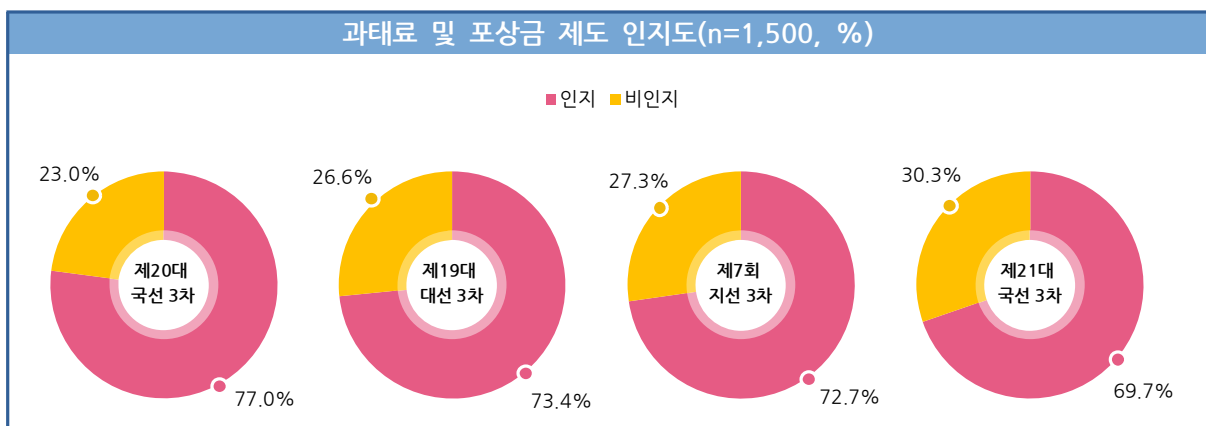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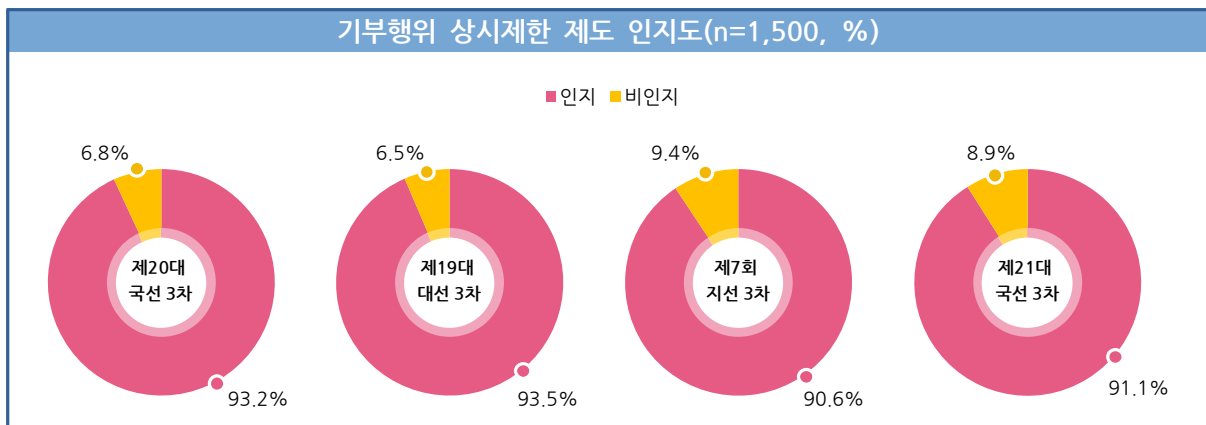


선거제도 인지도(n=1,500, %)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배분방식
전체	92.0	67.3	66.1
18~29세	90.9	53.0	57.0
30대	92.2	68.1	66.2
40대	96.8	76.3	69.7
50대	94.8	79.0	68.9
60대	94.1	70.3	66.0
70세 이상	79.3	52.0	64.5

## 14. 기타 선거제도 인식

▶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 인지도 91.1%,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인지도 69.7%

- 대부분의 유권자가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인지도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 대비 낮지만, 응답자의 약 7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도 인지자 대부분(93.3%)이 '효과 있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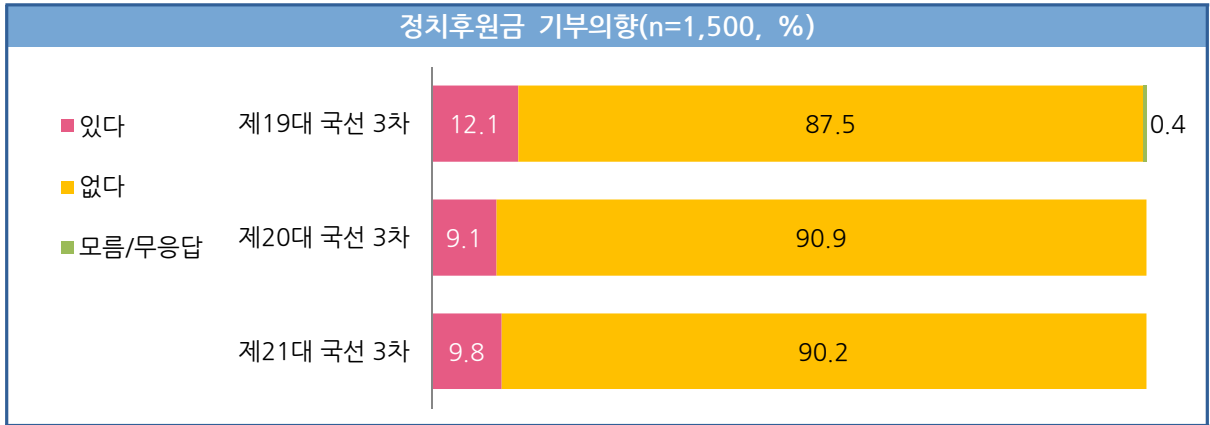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효과성(제도 인지자: n=1,046, %)	효과 있다	효과 없다
제20대 국선 3차	89.3	10.7
제19대 대선 3차	94.0	6.0
제7회 지선 3차	92.2	7.8
제21대 국선 3차	93.3	6.7



▶ 정치후원금 기부의향 9.8%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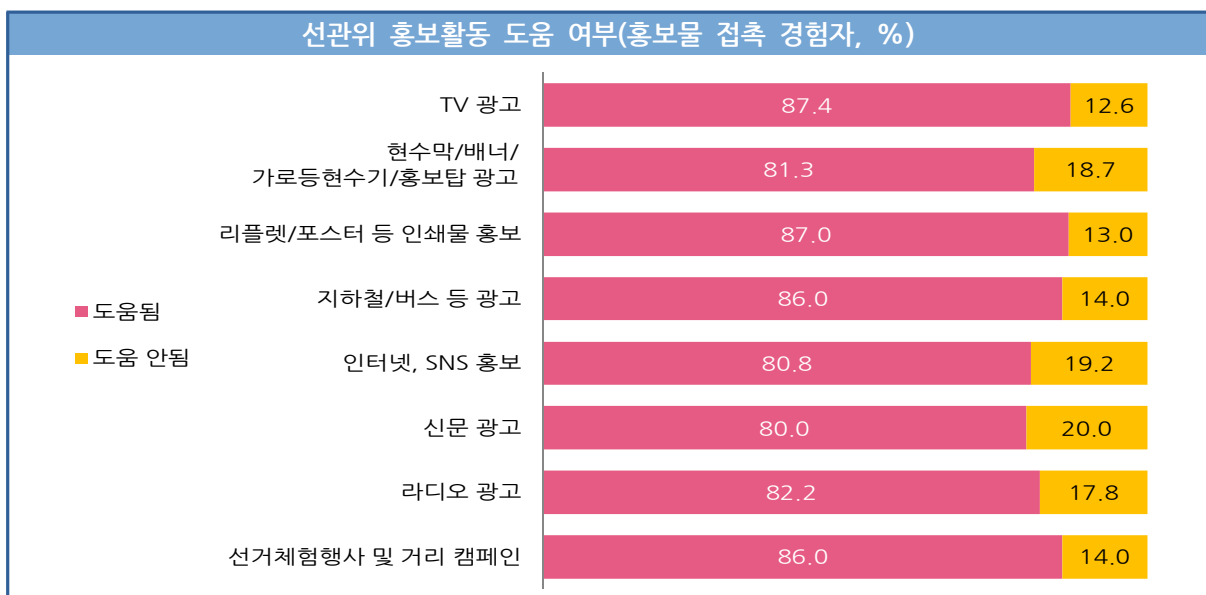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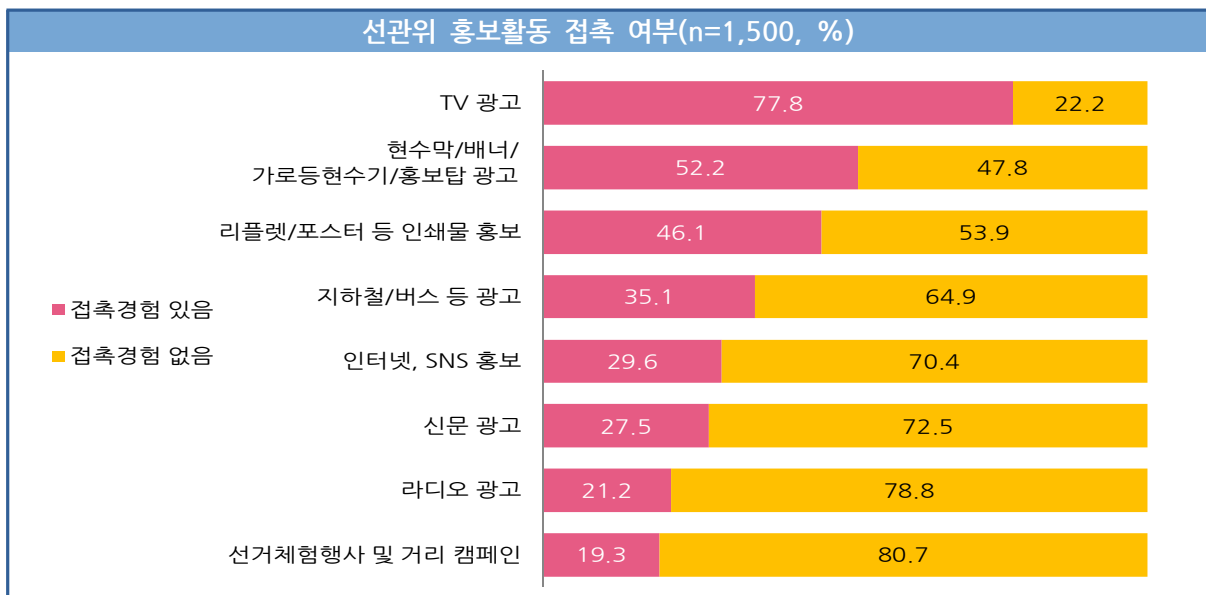
-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8%가 '있다'고 응답해, 지난 20대 국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부의향 10명 중 1명 수준인 가운데, 70세 이상(5.4%)과 18~29세(7.7%)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



정치후원금 기부의향 (n=1,500, %)	있다	없다
18~29세	7.7	92.3
30대	10.3	89.7
40대	11.2	88.8
50대	11.7	88.3
60대	11.3	88.7
70세 이상	5.4	94.6

## 15.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

- ▶ 응답자 4명 중 3명(77.8%), 선관위 TV 광고 접촉
- ▶ 선관위 홍보활동 접촉 응답자 80%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선관위 홍보활동의 접촉도는 'TV 광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52.2%), '리플렛/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46.1%), '지하철/버스 등 광고'(35.1%) 순으로 나타남
- 선관위 홍보활동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7회 지선대비 'TV 광고' 접촉률은 8.6%p 상승한 반면, '라디오 광고'(-14.1%p)와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14.6%p)은 크게 감소함





선관위 홍보활동 접촉 경험(n=1,500,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TV 광고	70.5	59.7	69.2	77.8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	36.5	47.9	59.7	52.2
리플렛/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26.0	45.2	45.9	46.1
지하철/버스 등 광고	34.4	37.7	37.9	35.1
인터넷, SNS 홍보	25.8	20.7	23.5	29.6
신문 광고	26.0	18.9	25.9	27.5
라디오 광고	20.4	39.8	35.3	21.2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	34.9	14.1	33.9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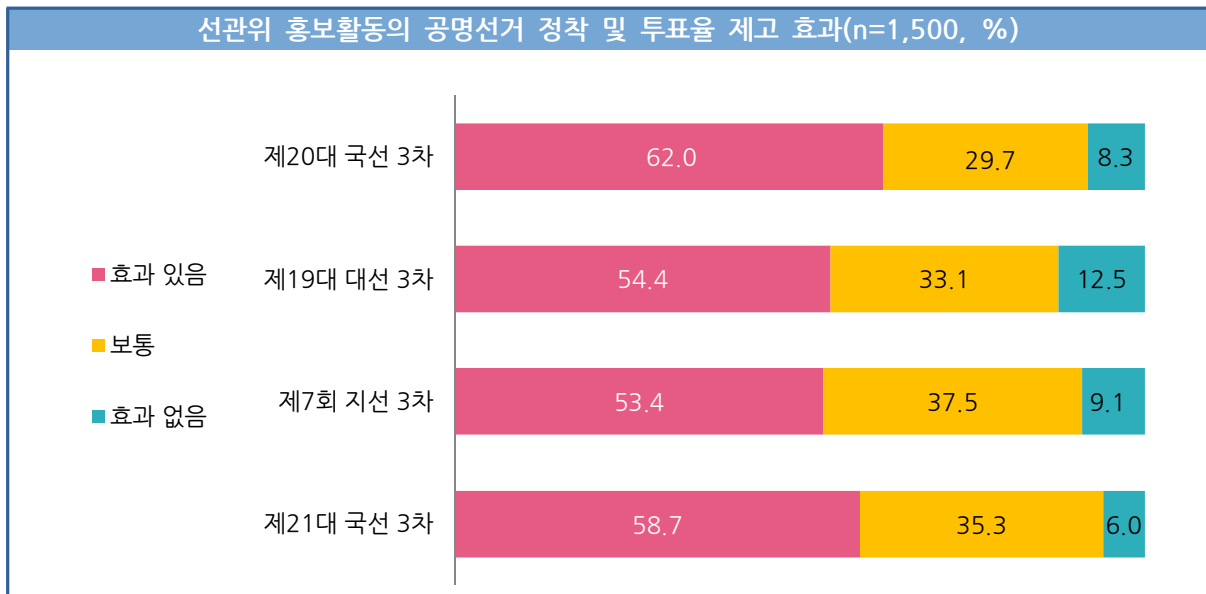
선관위 홍보활동 '접촉 경험 있다' (%)	TV 광고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	리플렛/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지하철/버스 등 광고	인터넷, SNS 홍보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선거체험 행사 및 거리 캠페인
전체(n=1,500)	77.8	52.2	46.1	35.1	29.6	27.5	21.2	19.3
투표자(n=1,279)	79.3	53.9	48.7	35.9	30.2	29.4	22.6	20.3
비투표자(n=221)	69.2	42.6	31.1	30.9	26.1	17.0	13.5	13.8

선관위 홍보활동 도움 정도(홍보물 접촉경험자,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TV 광고	79.3	75.7	84.8	87.4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	81.8	71.9	81.3	81.3
리플렛/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83.3	76.5	83.6	87.0
지하철/버스 등 광고	77.5	73.3	79.5	86.0
인터넷, SNS 홍보	76.8	74.1	76.7	80.8
신문 광고	81.8	76.7	80.7	80.0
라디오 광고	80.4	79.3	86.6	82.2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	75.7	78.5	84.3	86.0



▶ 선관위 홍보활동 전반적 평가 ‘효과 있음’ 58.7%

- 지난 7회 지선(53.4%) 대비 5.3%p 높으나, 20대 국선(62.0%) 대비 낮은 수준
- 투표한 응답자(n=1,292)의 ‘효과 있다’는 63.1%인 반면, 선거 비투표자(n=221)는 33.3%로 투표 여부에 따라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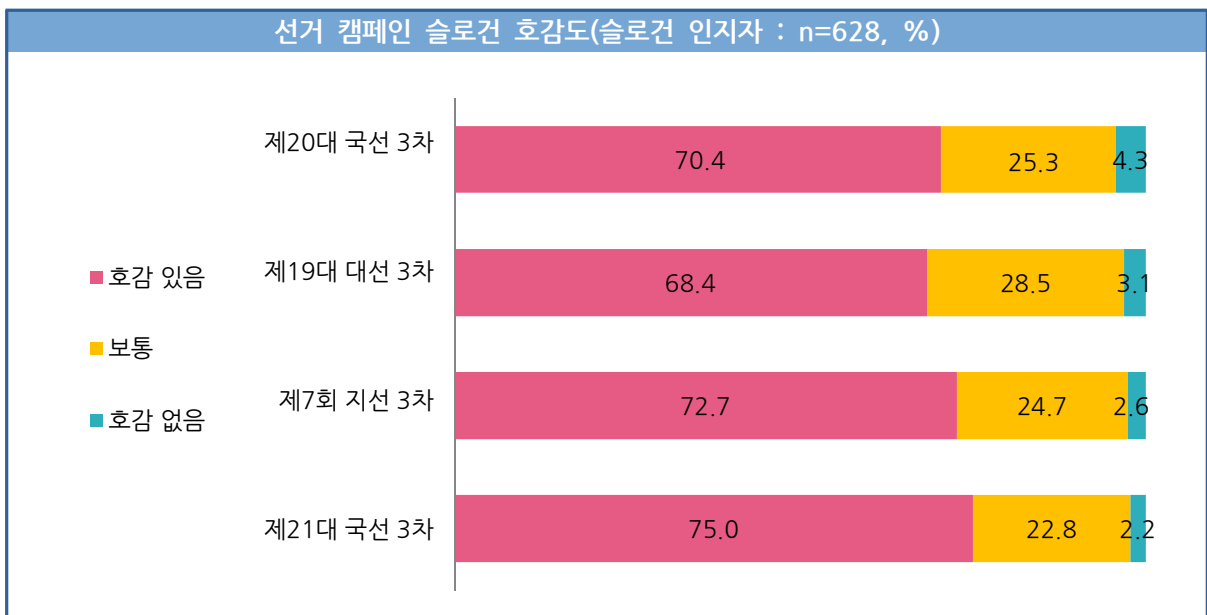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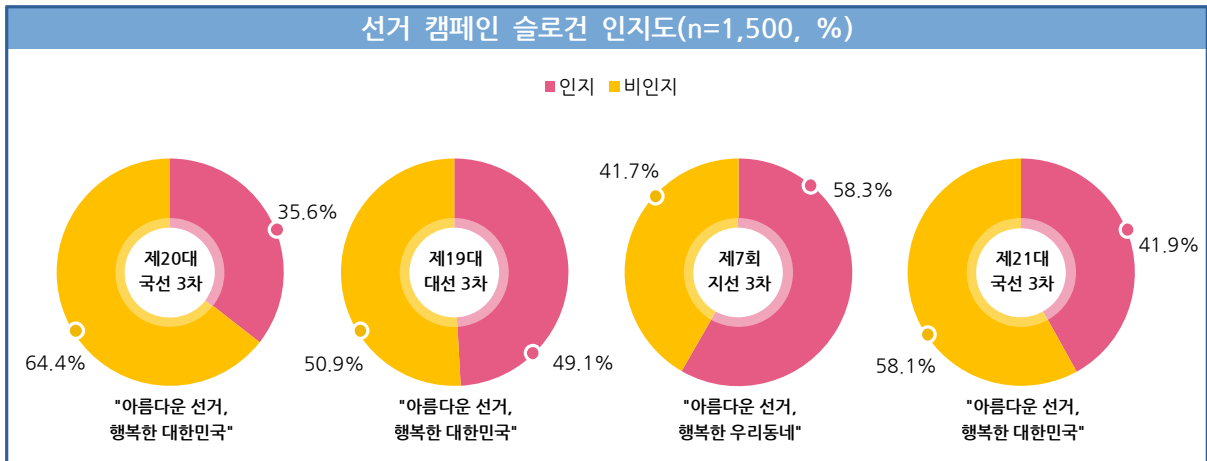


선관위 홍보활동의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율 제고 효과(n=1,500, %)	효과 있음	보통	효과 없음
전체(n=1,500)	58.7	35.3	6.0
투표자(n=1,279)	63.1	32.3	4.7
비투표자(n=221)	33.3	52.7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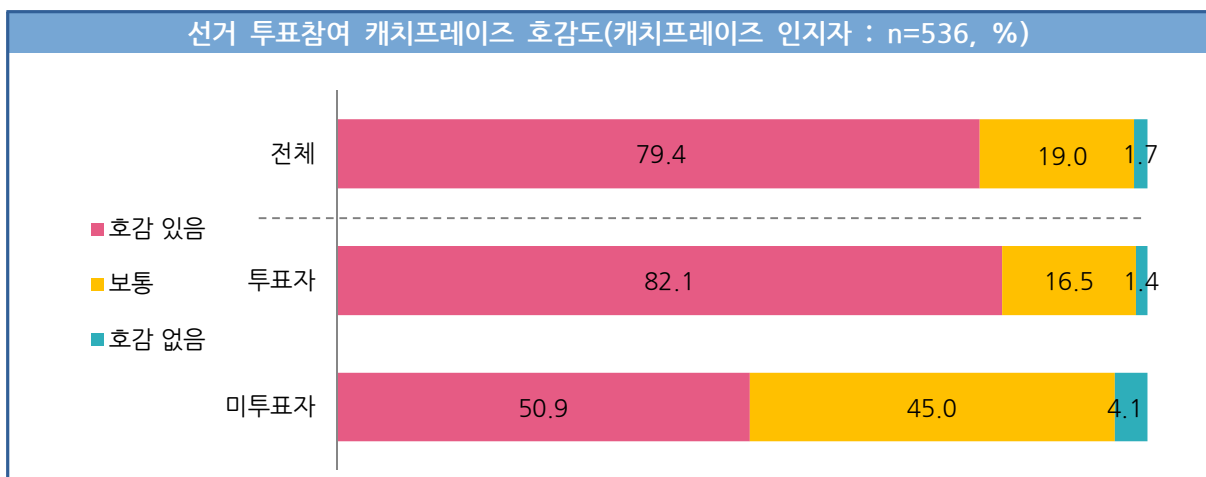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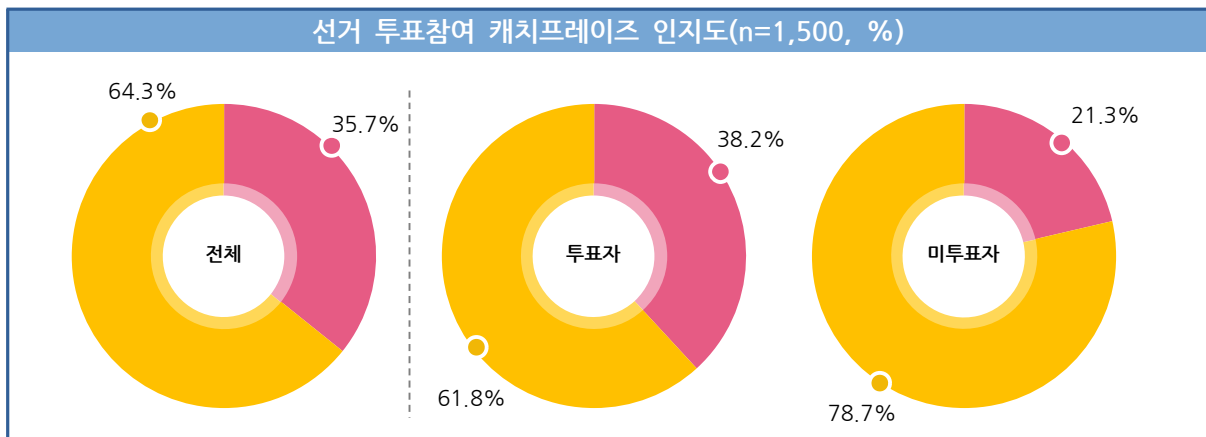
▶ 선거 캠페인 슬로건 인지도 41.9%, 호감도 75.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1.9%로, 지난 7회 지방선거(58.3%)보다는 낮으나, 20대 국회의원 선거(35.6%) 대비 5.3%p 상승함
- 선거 캠페인 슬로건 인지자 4명 중 3명(75.0%)이 슬로건에 ‘호감이 간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이 많은 가운데, 호감도는 지난 7회 지선 대비 2.3%p 상승함



## ▶ 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인지도 35.7%

- 21대 국회의원 선거 캐치프레이즈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의 인지도는 35.7%로, 선거 슬로건(41.9%) 대비 낮게 나타남. 인지도는 투표자가 38.2%로, 미투표자(21.3%)보다 16.9%p 높음
- 캐치프레이즈 인지자들 중 캐치프레이즈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79.4%로 호감도 높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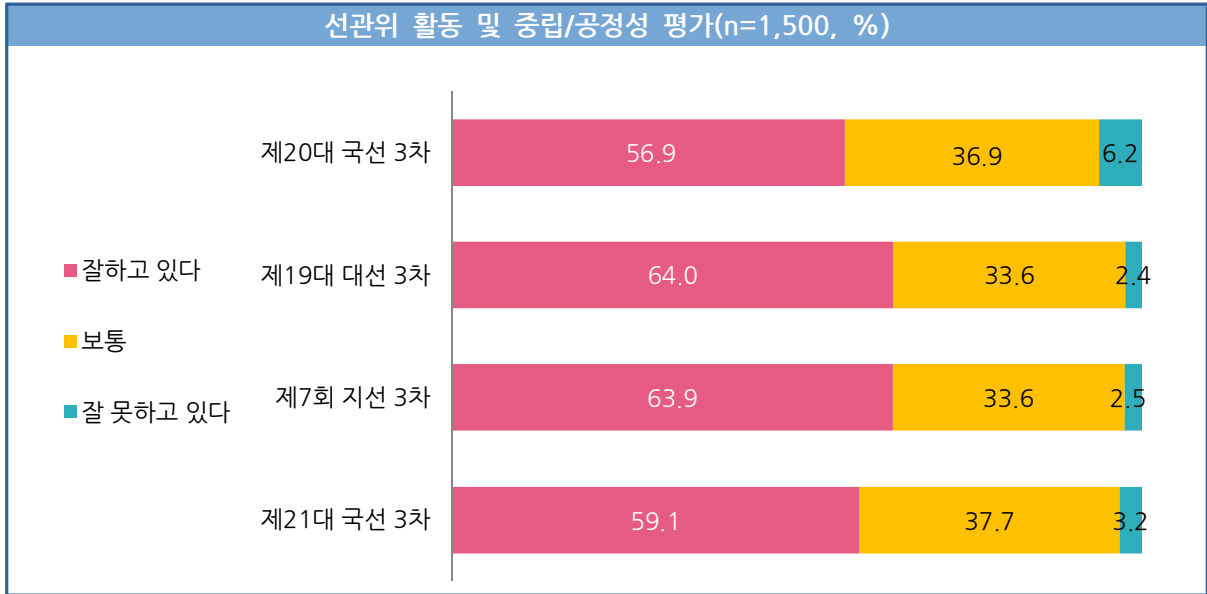




## 16.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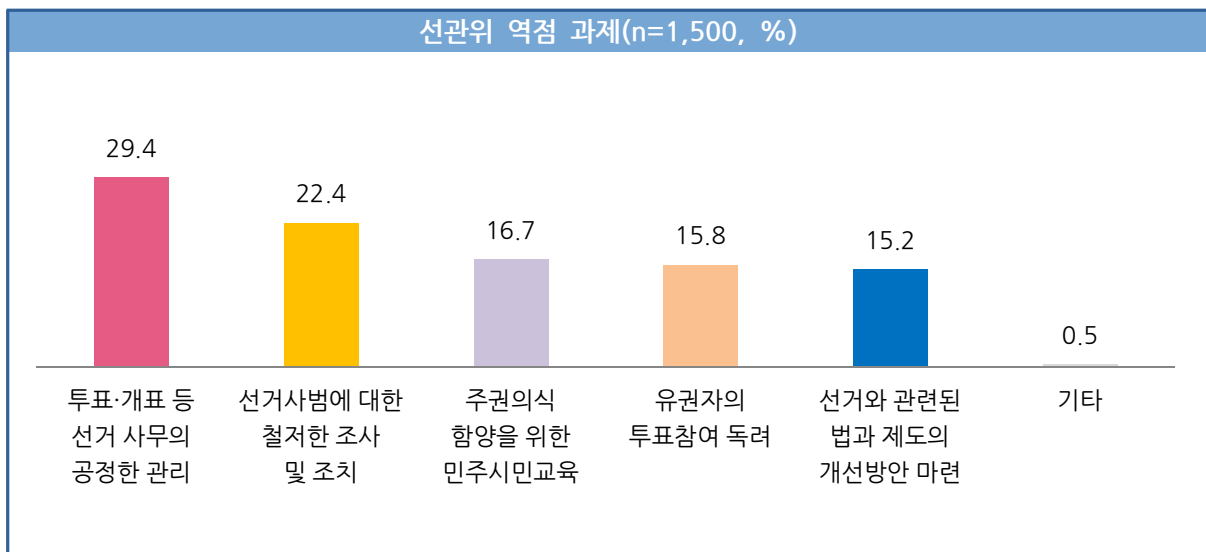
▶ 응답자 5명 중 3명(59.1%), 선관위 활동 '잘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 공정성 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1%(매우: 3.9% + 잘하고 있는 편: 55.1%)로 지난 대선, 지선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대 국선 대비 상승함



▶ 선관위 중점 과제는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조치’

- 선관위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응답이 29.4%로 가장 많이 응답된 가운데, 이어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22.4%),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16.7%) 등이 응답됨
-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 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응답은 지난 선거 대비 응답률 증가한 반면,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응답은 감소함



선관위 역점 과제(n=1,500, %)	제20대 국선 3차	제19대 대선 3차	제7회 지선 3차	제21대 국선 3차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20.6	17.3	24.0	29.4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15.5	15.6	15.1	22.4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	28.2	16.7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	-	26.2	15.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6.8	5.5	6.0	15.2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32.5	30.8	-	-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	24.5	30.5	-	-
기타	0.1	0.3	0.5	0.5



## 붙임 1

질문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원 ○○○입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3702-2100번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다”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조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 내용은 그 비밀이 보호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p>■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p> <p>■ 지역 규모 : 1. 광역시(특별시 포함)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p> | <p>2020년 4 ~ 5월</p> <p>한국갤럽조사연구소</p> <p>대표박재형</p> <p>담당연구원 이승주</p> <p>실사연구원 백미애</p> <p>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p> <p>전화 02-3702-2625</p>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응답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답자 확인, 응답내용 확인, 답례품 수령 여부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조사 종료 후 6개월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답례품 제공이 불가합니다.

1. 동의함  
2. 동의 안 함 → **설문중단 및 조사표 파기**

- SQ1) 실례지만, ○○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8세 이상 조사 가능**
- SQ2) 성 별 : 1. 남자 2. 여자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주소	
응답자 연락처	1. 일반전화 ( ) - ( ) - ( ) <small>지역번호      국      번호</small> 2. 휴대폰 ( ) - ( ) - ( )
조사 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부터 ____ 시 ____ 분까지 (    분간) <small>(반드시 실제 응답 소요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small>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Supervisor	검 증 원

## A.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문 1) ○○님께서서는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1. 매우 많았다
2. 조금 있었다
3. 별로 없었다
4. 전혀 없었다

문 2) ○○님께서서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

1. 투표했다 → **문 3)으로 갈 것**
2. 투표하지 않았다 → **문 2-1)로 갈 것**

### [문2) 2번 응답자만]

문 2-1)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9)로 갈 것**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2.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4.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5.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6.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
7. 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8. 상호비방, 돈 선거 등 선거운동에 실망해서
9.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10. 기타(적을 것: \_\_\_\_\_)

### [문2) 1번 응답자만]

문 3) 그러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중 언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1. 사전투표일(4월 10일 ~ 4월 11일) → **문 3-1)로 갈 것**
2. 선거일(4월 15일) → **문 4)로 갈 것**

### [문3) 1번 응답자만]

문 3-1) 사전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 선거일(4.15.)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2.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선거일(4.15.)에 주민등록지 투표소로 갈 수가 없어서
3. 선거일(4.15.)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투표를 하지 못할 수 있어서 미리 투표
4. 사전투표소 근처에 방문하였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5. 언론보도 또는 주변 권유
6. 기타(적을 것: \_\_\_\_\_)

### [문3) 1번 응답자만]

문 3-2) 만약 4월 10일 ~ 4월 11일 진행된 <사전투표>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님께서서는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실 수 있었습니까?

1. 투표할 수 있었다
2. 투표할 수 없었다

**[문2) 1번 응답자만]**

문 4) ○○님께서는 지지한 후보자를 언제 결정하셨습니다가?

1. 투표 당일
2. 투표일 1~3일 전
3. 투표일 1주일 전
4. 투표일 2주일 전
5. 투표일 3주일 전
6. 투표일 3주 이상 전

**[문2) 1번 응답자만]**

문 5) ○○님께서는 지지 후보자 선택 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다가?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 정책·공약
2. 소속 정당
3. 인물·능력·도덕성
4. 출신 지역
5. 정치 경력
6.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7. 주위의 평가
8. 기타(적을 것: \_\_\_\_\_)

**[문2) 1번 응답자만]**

문 6) ○○님께서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지지 정당 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다가?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 정당의 이념
2. 정당의 정책·공약
3.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4. 지지한 지역구 후보자와 같은 정당
5. 기타(적을 것: \_\_\_\_\_)

**[문2) 1번 응답자만]**

문 7) ○○님께서는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다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1. TV·신문 등 언론의 보도·기사
2.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3. 가족·친구·이웃과의 대화
4. 후보자의 홍보물(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등)
5. 후보자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6.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
7.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
8. 선관위 홈페이지
9. 기타(적을 것: \_\_\_\_\_)

**[문2) 1번 응답자만]**

문 8)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십니까?

- 1. 매우 충분했다
- 2. 약간 충분한 편이었다
- 3. 약간 부족한 편이었다
- 4. 매우 부족했다

문 9) 선관위에서는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 도움이 안 된다
-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 10) ○○님께서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②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 선거 분위기**

문 11)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공정했다
- 2. 대체로 공정했다
- 3. 별로 공정하지 못했다
- 4.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문 12) ○○님께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깨끗했다 ↗ → **문 12-1)으로 갈 것**
- 2. 다소 깨끗했다 ↘
- 3. 보통이었다 → **문 13)으로 갈 것**
- 4. 다소 혼탁했다 ↙
- 5. 매우 혼탁했다 ↘ → **문 12-2)으로 갈 것**

**[문12) 1번, 2번 응답자만]**

문 12-1) ○○님께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법 준수
2.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
3.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감사·단속 때문에
4. 검찰·경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단속 때문에
5.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 때문에
6. 언론의 공정한 보도 때문에
7. 공무원들의 관권개입이 줄었기 때문에
8. 기타(적을 것: \_\_\_\_\_)

**[문12) 4번, 5번 응답자만]**

문 12-2) ○○님께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지 못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과 유권자들의 금품수수 때문에
2.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3. 검찰·경찰의 소극적인 조사·단속 때문에
4.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 및 조사·단속 때문에
5.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6.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때문에
7. 후보자 팬클럽, 산악회 등 사조직 개입 때문에
8. 기타(적을 것: \_\_\_\_\_)

**[전체 응답자]**

문 13)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
2.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
3. 금품·선심관공·음식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
4. 공무원의 선거 관여
5. 유권자의 신고의식 결여
6. 지역감정 유발
7. 기타(적을 것: \_\_\_\_\_)

문 14)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14] '2. 경험 있다' 응답자만**

문 14-1) 그렇다면, ○○님께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 운동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불법 선거운동 유형별로 아래 <응답표>에 모두 말씀해주시요.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불법 선거운동 유형	문14 경험 여부		문14-1) 경험 시 대응						
	없다	있다	1	2	3	4	5	6	7
① 후보자간 인신공격·비방·흑색선전 행위	1	2 →	1	2	3	4	5	6	7
② 팸플릿, 산악회, 포럼 등 사조직의 선거운동 관여행위	1	2 →	1	2	3	4	5	6	7
③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종교단체 등에서 누구를 찍어주자고 하는 행위	1	2 →	1	2	3	4	5	6	7
④ 돈을 받고 정당과 선거행사에 참여하는 일	1	2 →	1	2	3	4	5	6	7
⑤ 돈봉투·선물·선심관광·음식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	1	2 →	1	2	3	4	5	6	7
⑥ 공무원,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행위	1	2 →	1	2	3	4	5	6	7

1. 경찰·검찰에 신고
2.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3. 시민·사회단체에 신고
4. 항의 및 제지
5. SNS로 공유
6.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7. 기타(적을 것: \_\_\_\_\_)

문 15) ○○님께서 앞으로 깨끗한 선거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1. 언론기관·사회단체 등이 올바른 여론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2.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들이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위법행위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아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5.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처벌을 해야 한다
6. 기타(적을 것: \_\_\_\_\_)

**C. 선거 제도**

문 16)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님께서 본 조사 이전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모르고 있었다

문 17)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일부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님께서 본 조사 이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있었다 → **문 17-1)로 갈 것**
2. 모르고 있었다

**[문 17) 1번 응답자만]**

문 17-1)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구체적인 의석 배분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들어본 적은 있다
- 3. 잘 모른다
-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 18) ○○님께서서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금요일)과 4월 11일(토요일)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1. 알고 있었다
- 2. 모르고 있었다

문 19) ○○님께서서는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0) ○○님께서서는 현행 <사전투표>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전투표 시간 또는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 2. 사전투표 시간 또는 기간을 단축되어야 한다
- 3. 사전투표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 4. 사전투표소를 축소 설치해야 한다
- 5.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4.10.~4.11.)과 선거일(4.15.)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21) ○○님께서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1. 알고 있었다
- 2. 모르고 있었다

문 22) ○○님께서서는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전투표일(4월 10일, 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셨습니까?

- 1. 예 → **문 22-1)로 갈 것**
- 2. 아니오 → **문 23)으로 갈 것**

**[문22) 1번 응답자만]**

문 22-1)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이번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였습니까?

- 1.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었다 ↘ → **문 23)으로 갈 것**
- 2. 형식적으로 보장해주었다 ↙
- 3. 보장해주지 않았다 → **문 22-2)로 갈 것**

**[문22-1) 3번 응답자만]**

문 22-2) ○○님께서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하였습니까?

- 1. 신고했다 → **문 23)으로 갈 것**
- 2. 신고하지 않았다 → **문 22-3)으로 갈 것**

**[문22-2) 2번 응답자만]**

문 22-3) ○○님께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 1. 불이익이 있을까봐
- 2. 고용주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 3. 가족이나 지인의 만류로
- 4.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려워서
- 5. 기타(적을 것: \_\_\_\_\_)

문 23) ○○님께서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축·조의금·찬조금·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들어본 적은 있다
- 3. 잘 모른다
-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 24) ○○님께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 → **문 24-1)로 갈 것**
- 2. 들어본 적은 있다   ↙
- 3. 잘 모른다
-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24) 1번, 2번 응답자만]**

문 24-1) 그렇다면, ○○님께서 이 같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가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효과가 있다
- 2. 다소 효과가 있다
- 3. 별로 효과가 없다
- 4. 전혀 효과가 없다

문 25) 현행법상 회사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D.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평가

### ▶ 선관위 홍보 활동 영상 및 사진 제시

문 26)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법선거, 정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26) '1. 경험 있다' 응답자만]

문 26-1) 각 유형별로 보거나 들으신 경험이 있는 경우, 홍보활동이 실제 선거참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유형	문26) 접촉 여부		문26-1) 도움 정도			
	없다	있다	매우 도움 됨	어느 정도 도움 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① (동영상 재생) TV 광고	1	2 →	1	2	3	4
② (오디오 재생) 라디오 광고	1	2 →	1	2	3	4
③ (이미지 제시) 신문 광고	1	2 →	1	2	3	4
④ (이미지 제시) 지하철/버스 등 광고	1	2 →	1	2	3	4
⑤ (이미지 제시)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	1	2 →	1	2	3	4
⑥ (이미지 제시) 리플렛/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1	2 →	1	2	3	4
⑦ (이미지 제시) 인터넷, SNS 홍보	1	2 →	1	2	3	4
⑧ (이미지 제시)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	1	2 →	1	2	3	4

문 27) ○○님께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선거 정착 및 투표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가 있었다
2.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3. 보통이다
4. 별로 효과가 없었다
5. 전혀 효과가 없었다

### ▶ 선관위 슬로건 이미지 제시

문 28)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캠페인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님께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 28-1)로 갈 것**
2. 아니오

**[문28) 1번 응답자만]**

문 28-1) ○○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이번 선거캠페인의 슬로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호감이 간다
- 2. 호감이 가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3.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문 29)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를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당신의 한 표, 당신의 목소리”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님께서 위 캐치프레이즈를 주제로 한 현수막·포스터·방송광고 등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 29-1)로 갈 것**
- 2. 아니오

**[문29) 1번 응답자만]**

문 29-1) ○○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이번 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호감이 간다
- 2. 호감이 가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3.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문 30) ○○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 수행 공정성(투·개표 관리 공정성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매우 잘하고 있다
-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3.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 4. 매우 잘 못하고 있다

문 31) ○○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보기 로테이션 할 것]**

- 1.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 2.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3.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 4.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5.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6. 기타(적을 것: \_\_\_\_\_)

문 32) ○○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활동이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99. 모름/무응답

## E. 인구통계학적 특성

D 1)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재이상

99. 모르겠다/무응답

D 2) 현재 ○○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1. 경영/관리/전문/자유직
2. 사무관련직
3. 전문기술직
4. 자영업
5. 서비스/판매/영업직
6. 농/임/어업
7. 생산/단순노무직
8. 주부
9. 학생
10. 무직/기타

99. 모르겠다/무응답

D 3) 실례지만, ○○님 닷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100만원 이하
2. 101-200만원
3. 201-300만원
4. 301-400만원
5. 401-500만원
6. 501-700만원
7. 701만원 이상

99. 모르겠다/무응답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